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21 vol.230

PIAGET

PIAGET SUNLIGHT





SUBLIMAGE

L'ESSENCE FONDAMENTALE
AND LE BAUME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 르 바움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힘을 강화하는 강력한 듀오

두 가지 특별한 스킨케어 제품은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닐라 플레니폴리아*의 강력한 에너지와 함께 특별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레쌍스 풍다멘탈의 포몰리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작용을 하는 고농축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르 바움의 부드러운 텍스처는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두 가지 제품으로 활력이 되살아나 탄력 있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사실이 특별히 개발한 과학적인 바닐라 플레니폴리아의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통해 40배 더 농축된 활성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HANEL



Ring, white gold, one 7.47 carats sapphire (Madagascar), sapphires, tourmalines and diamonds



DIOR

HIGH JEWELLERY

Necklace, white gold, one 8.17 carats sapphire (Madagascar), sapphires, emeralds, tourmalines, tsavorite garnets and diam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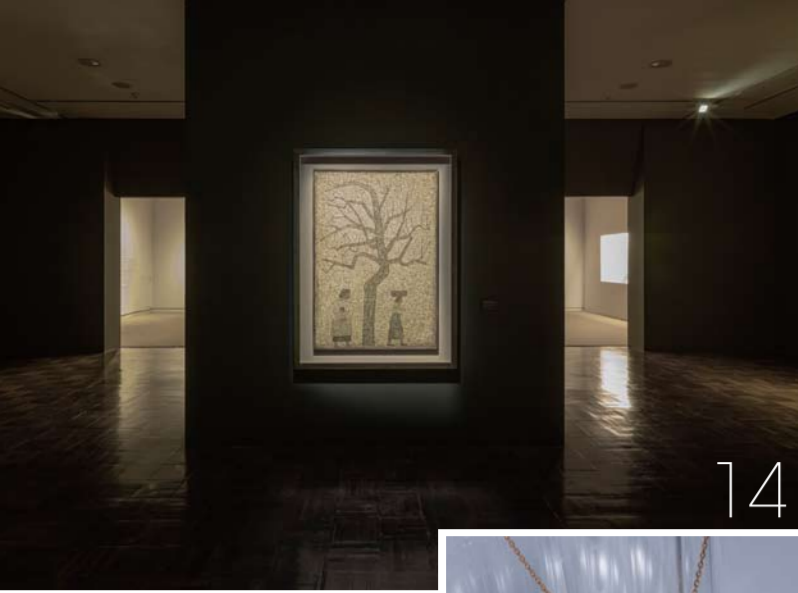
SEAMASTER 300

HYUN BIN'S CHOICE

액션, 드라마, 스릴러,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매력과 수많은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Hyun Bin은 대체 불가능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습니다. 경력 전반에 걸쳐 백상 예술 대상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제47회 백상예술대상 TV대상 등 다양한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까지 지닌 배우 Hyun Bin은 오메가의 글로벌 앰배서더입니다.



갤러리아 입구점 명품관 EAST (12월 초 오픈 예정) 광고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구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대구점



14



15



1874년 세계 공장으로 출발한 피아제는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을 통해 골드, 핑스톤 및 진귀한 보석을 결합한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 신라이트 컬렉션은 동글게 빛나는 금빛 태강 모티브를 더해 빛으로 가득 찬 순간의 온기와 행복을 표현했다. 표지 속 피아제 신라이트 펜던트는 약 0.1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사탕한 18K 핑크 골드 트라이앵글 모티브가 약 2.37캐럿 말라카이트 스톤을 둘러싸고 있다. 문의 1668-1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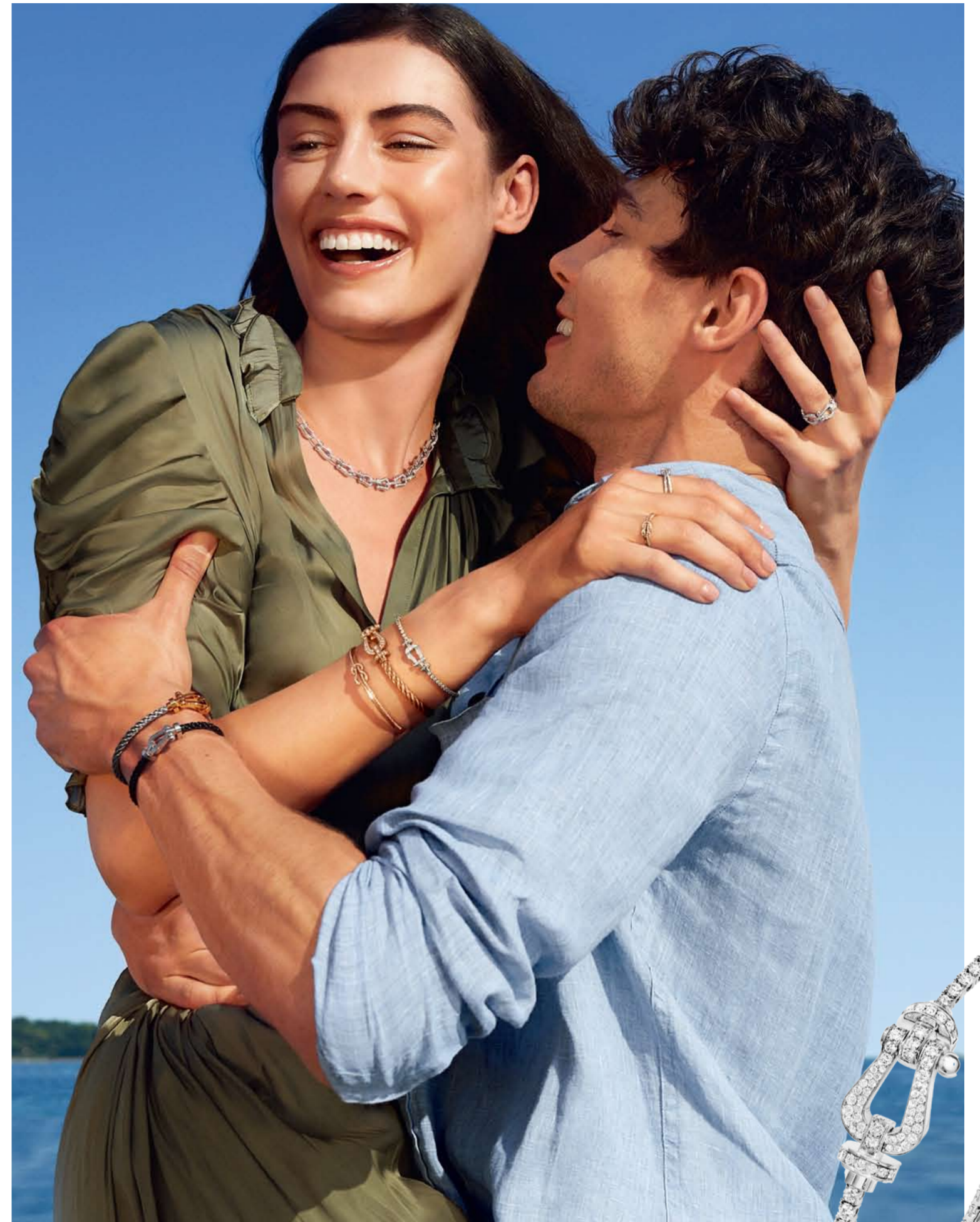


22



12

- 14 **눈앞에는 겨울이, 나목(裸木)에선 봄의 믿음**이... 국립현대미술관(MMCA)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열린 국민 화가 박수근의 대규모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다. 박수근이라는 예술가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다. 운전사는 겨우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3월 1일까지.
- 18 **FRESH EVERYDAY** 작아서 부담 없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심플한 디자인에 존재감을 뽐내는 스틸 다이아몬드 주얼리.
- 20 **HOLIDAY WISH LIST** 행복한 연말을 완성해줄 특별한 선물 리스트.
- 32 **THE CLASSY GIFT**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프렌치 시크 감성의 셀로노 백들.
- 36 **CREATIVE JOURNEY** 몽클레르 자니에스의 '몬도자니에스' 프로젝트는 이번 시즌 밀라노, 도쿄, 상하이, 서울, 뉴욕으로 여행을 이어갔다.
- 38 **HISTORICAL HERITAGE** 2백60년의 헤리티지와 아카이브 파스로 탐구해본 경이롭고 황홀한 비세몬 콘스탄틴의 하이 워치메이킹 세계.
- 42 **PRESENT PERFECT** 올해가 가기 전 꼭 받고 싶은 선물, 피아제 플로워치.
- 44 **SHINING HOLIDAY**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는 홀리데이 시즌, 피아제의 2021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에 주목해볼자.
- 45 **CLASSIC DANDY** 포근한 스웨터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감수성, 브라운 가죽 스트랩 워치 6.
- 46 **PIONEER OF TOURBILLON** 브레게 하우스가 자랑하는 투르비옹을 품은 매력적인 타임피스들을 소개한다.
- 48 **TIME OF SKY** 파일럿 워치의 명가 IWC 샤프하우젠이 2021년 새롭게 선보인 파일럿 워치.
- 50 **GREAT ENCOUNTER** 해물탕과 의상 디자이너 제니 브라운트만이 만나 현대와 미래를 잇는 매력적인 타임피스를 탄생시켰다.
- 51 **THE MASTERPIECE** 위스키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딩 발베네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선보였다.
- 52 **WINTER HOLIDAY** 세련된 감성의 여성을 위한 폼스튜디오와 클래식메 트랜드함을 믹스 매칭하는 폼앤즈리운에서 제안하는 연말 기프트.
- 53 **NEW ANEMONES GARDEN** 자유로운 핑크 청산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일렉산더 맥퀸의 뉴 부티크.
- 54 **HOLIDAY WITH SCENTS** 1백 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사벨 N5가 홀리데이를 맞아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담았다.
- 55 **ROMAN CHIC** 이탈리아 정통 클래식스를 완성하는 향 테일링.
- 56 **SCENTS WE LOVE** 목직향 우디 향의 향수. 남녀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중성적인 매력까지 겸비했다.
- 57 **EDITOR'S PICK** 반짝이고 향기로운 한해의 마무리.



Style 조선일보

Issue.230 December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재무 | 권신비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화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LIVE THE JOY
FRED



여왕을 위하여

나폴리의 여왕 카롤린 보-파르트를 위해 제작한 최초의 손목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 베젤과 다이얼 중앙, 6시 방향과 4시 방향 위로 자리한 크라운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영롱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초드라지듯 섬세하고 유연한 화이트 골드 밴드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신비로운 눈부심을 선사한다. 타임피스보다는 '보물'이라는 명칭이 더 명확한 표현일지도. 8천8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PERFECT PAIRED

두 배로 눈부신 아름다움,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조합한 콤팩트 주얼리 피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벨 솔레일 링** 신비로운 태양의 반짝임을 표현한 피스. 두 아이링을 겹쳐서 원웨이, 혹은 분리해서 두 웨어로 착용 가능하다. 5천만원대.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타파니 솔레일 세터링 링** 전설적인 주얼러 잔 솔레일리의 터키가 깃든 매혹적인 피스. 불꽃같은 빛나는 플라티넘 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옐로 골드로 테두리를 둘러 화려한 분위기를 이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프레드 석사 링** 직선과 곡선이 대비를 이루며 분명한 개성을 드러내는 모던 주얼리. 옐로 골드 링과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20개를 올려 화려함을 배가했다. 9백만원. 문의 02-514-372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주이** 어시스턴트 **배시현**



GOOD SOCKS

실땀 보이는 삭스가 한 곳 다른 촉감을 완성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코튼에 셀린느 로고로 심플하게 장식해 웨어러블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주는 양말 가격 미정 **셀린느**. 문의 02-549-6631. 종아리까지 감싸는 길이로 로고 패턴 플레이가 룩에 포인트를 주는 양말 **23인원 구미**. 문의 02-3452-1921. 발목에 레드 컬러와 디올 로고로 포인트를 준 **엘리시브 코튼 삭스**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배시현**



태양을 품다

연말에 빼놓을 수 없는 반짝이는 것들. 그중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선사하는 주얼리를 소개한다. 언제나 동글게 빛나는 금빛으로 모든 이에게 밝은 에너지와 기쁨의 손길을 선사하는 태양 모티브의 파피제 스타라이트 컬렉션 주얼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섬세하고 정교한 디자인은 60년 가까이 축적된 파피제 메종의 금세공 기술을 단연 돋보이게 한다. 그중 파피제 스타라이트 네크리스는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블루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화이트 골드 주변을 섬세하게 감싸 은은한 반짝임으로 의상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자태를 뽐낸다. 18K 화이트 골드에 1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1.51캐럿과 36개의 사파이어 약 4.13캐럿을 세팅했다. 3천1백만원대. 문의 1668-1874



PARTY LADY

연말 파티 룩에 강렬한 포인트를 더하는 데는 백만 한 게 없다. 간결하고 모던한 디자인이지만 골드 로고와 체인으로 특별함을 더한 트라몽프 체인백을 추천한다. 지갑, 휴대폰, 립스틱 정도 들어갈 콤팩트한 사이즈로 파티 룩 무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셀린느만의 강성이 담긴 모노그램과 컬러 포인트를 활중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가로로 긴 비율로 체인 없이 클라치처럼 사용하면 멋진 에티튜드를 완성할 수 있어 실용도 또한 높다. 2백85만원. 문의 02-549-6631

이제, 피부의 시간

해가 바뀌기 전 지친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고 고성능 앰플. (왼쪽부터) **생카이올리드 리커버리 인텐스 컨센트레이트 A.M. & P.M.** 비건 골드 펩티드 펩타이드 성분인 피부 탄력을 높이고 결을 매끄럽게 정돈한다. A.M. 6mX4 + P.M. 6mX4 97만원대. 문의 070-4370-7511 **향긋 어드밴스드 제.피피오 생카티비 듀얼 컨센트레이트** 입공기 프리 &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담긴 마이크로비움 베이스 세럼에 순도 98%의 향산화 블루 부스터 앰플을 한번의 클릭으로 활성화해 피부에 신선한 원료와 빠른 효과를 선사하는 앰플 20ml 12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스위스퍼펙션 RS-28 셀룰라 리주베이션 세럼** 피부에 즉각적인 생 리프트 효과를 끌어올려주고 고농축 세럼 30ml 47만5천원. 문의 1644-4490 **디올 뷰티 프레스티지 리 마이네르 필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 한 알 한 알 로즈 바이탈 수액을 담은 1인어 개의 로즈 마이크로-필드 강인한 힘과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한다. 50ml 42만9천원대. 문의 080-342-950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배시현**



MAGICAL CURVE

자유로운 핑크 정선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일렉트릭 맥퀸의 커브 베이 홀라데이 시즌을 맞아 눈부시게 재탄생했다. 아이코닉한 X자 하네스 디테일로 장식한 호보 스타일은 이어면서 크리스털을 더해 화려한 홀라데이 느낌을 자아낸다. 강하면서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메탈릭 피스로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룩을 완성해볼 것. 2백85만원. 문의 02-6905-3472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GOLD EYES

홀라데이 시즌이 되면 파카부터 칼라까지 더욱 특별해지는 뷰티 아이템. 올해 샤넬에서는 특별히 N5 1백 년의 명성을 기념해 N5의 스타일 코드에서 영감을 받은 매혹적인 홀라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 샤넬 뷰티만의 아이코닉한 칼라를 담은 아이샤도 레 기프트 옴브라는 파에 잘 어울리는 그윽하고 반짝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고급스러운 네 가지 컬러만 담았다. 색도에 각진한 N5 모티브는 소장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2g 8만4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EXHIBITION



현대미술가들이 가족 공방과의 협업으로 빛어낸 예술적 탐구 물음 선보이는 에르메스 공방 아티스트 레지던시 10주년 기념 전시가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린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이오 뷔르가르드(Io Burgard), 세바스티앙 구쥬(Sébastien Gouju) 등 현대미술가 7인이 참여하는 <전이의 형태 Fomes du Transfer>. 에르메스재단은 2010년부터 매년 4명의 작가를 선별해 에르메스 공방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꾸려왔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크리스탈, 가죽, 실크, 은 같은 재료를 다루면서 최고 장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장인들의 역시 참신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상생의 프로젝트다. 이번에는 특히 가족 공방에 주목해 전이의 형태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서울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시작으로 도쿄 르 포르, 프랑스 팡팡 마자탕 재키로에 시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장소마다 다른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매혹의 위스키

그랑 시즈의 화려한 신작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글렌피딕을 프랑스의 최고급 코냑 캐스크에서 2년간 추가 숙성시켜 한껏 우디하고 달콤한 풍미를 품고 있다. 약간의 향신료와 흑설탕을 가미한 크림 카피질이 일찌감치도 달짝지근한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긴다. 700ml 1백20만원대. 문의 02-2152-1600





나일론 크로스백,
23x17cm,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출라 배럴 걱정이 없는 아세이트
고글 신글라스 가격 미정 사셴.

감각적인 블루 색감의
니트 글러브
가격 미정 코치.

포근하고 따뜻한
니트 후디 49만원
JW 앤드슨.

리샤를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한 방수 재킷 가격
미정 프라다.

Selection

Winter Escape! 새하얀 슬로프 위 스타일리시한 활강!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패딩을 덧대 보온성을
높인 인크 나일론 부티
194490원 마우마우.



노르딕 패턴을 소재 니트 40만원대 몽로 랠프 로렌.



다크 아세이트 스퀘어 신글라스 56만원 벨루타.

튼튼한 내구성을 갖춘
방수 그린 후드론 케이스
11만원 리모와.



그린 패들 보머 부츠
1백30만원 보타가 베너.



카키 에디션 엑스
윈드 크로노 워치
2백70만원 헤르메스.



리샤를
소재의 세리아는
가죽을 조합한 니트
백, 40x15cm,
1백4990원 코치.



코치 080-888-1941
JW 앤드슨 1588-3717
프라다 02-3218-5331
미우미우 02-3218-5320
보타가 베너 02-3433-7601
몽로 랠프 로렌 02-6004-0220
몽클레르 컬렉션 080-311-0000
사셴 080-200-2709, chanel.com
펜디 02-514-0652 벨루타 02-547-1895
디올 멜 02-3480-0104 헤르메스 02-3467-8710
리모와 02-546-3920 헤드 070-4351-4144



파워 스키 1백20만원 헤르메스.

나일론 클라우보트를 조 스키를 99,999원 헤르메스.



TIME, A HERMÈS OBJECT.



HERMÈS H08
THE TEXTURE OF TIME



MMCA 덕수궁, 박수근 개인전

눈 앞에는 겨울이, 나무(裸木)에겐 '봄에의 믿음'이...

돌담길 사이로 고운 주단처럼 알록달록 깔려 있기도 하고, 요리조리 굴러다니기도 하는 은행잎과 단풍잎의 늦가을 세레나데도 막을 내렸다. 자연과의 조우를 즐기고자 도심 속 고궁 나들이에 나선다면 싸늘한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전 부지런을 떠는 게 인지상정일 터다. 그렇지만 아마도 별거벗은 나무들로 하여금 바들바들 떨게 하는 추위가 와도 주말을 틈타 미술 산책을 나오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인파만큼은 여전히 봄비지 않을까 싶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열린 '국민 화가' 박수근의 대규모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우리가 익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인 박수근이라는 예술가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전시는 '봄을 기다리는 나무(裸木)'이라는 부제처럼, 보다 희망찬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겨우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3월 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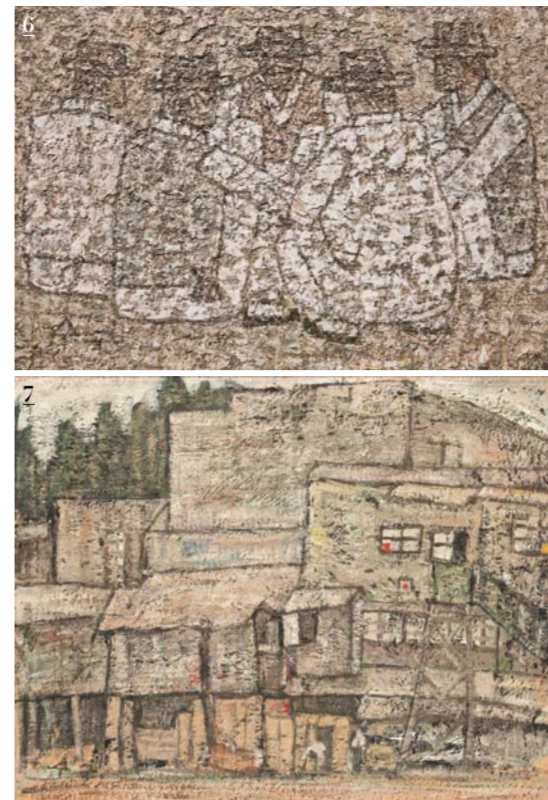


“...우람하게 큰 중년의 사나이가 겸연쩍은 듯이 웃고 있었다. 염색한 군복을 비좁은 듯이 입고 있는 그의 얼굴은 일종의 선량함, 어리석지 않은 선량함으로 의젓해 보였다.”
_박완서의 소설 <나무> 중에서

올해는 한국 문화의 거목 박완서가 우리 곁을 떠난 지 꼬박 10년이 된 해다. 역대급 팬데믹의 장기화로 여전히 어지럽지만,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한국인들이 사랑해마지않는 작가 박완서에게 등단의 초석이 된 '국민 화가'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나이 마흔에 늦깎이 데뷔를 한 박완서의 첫 소설 <나무>(1970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50년대 초반 미 8군 PX에서 초상화가로 잠시 일했던 박수근과의 인연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박수근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에 발표한 이 소설에서 1인칭 시점으로 회상하는 젊은 여성(주인공) 이정은 PX 초상화부에서 만난 생계형 화가 '옥희도'를 '어리석지 않은 선량함'을 품은 인물로 기억한다. 소설 말미에는 이 책의 제목이 왜 나무(裸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자난달,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웬

일인지 그제 고목이 아니라 나무(裸木)이었다. 그것은 바스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옥희도가 죽음을 맞이한 뒤 그의 유작전을 보러 간 이정이 한 작품을 뚫어지게 보고 이렇듯 읊조린다. 앞서 언급 없는 가지를 드러낸 커다란 나무 양옆에 두 여인을 담은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그림이다. 본디 '나무'는 가지만 양상히 남은 나무를 뜻하지만 박완서의 시선은 달랐다. 감장철 소스라바람에 떨지만 '봄에의 향기', '봄에의 믿음'이 애달프게 느껴지는 나무의 의연함을 포착했다.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무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감장철의 나무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밀레를 동경한 강원도 양구 소년, 독학으로 화가가 되다
시대의 아픔을 담백하게 보듬은 작업을 각자 글로, 그림으로 펼쳐냈던 두 예술인. 둘은 2021년 늦가을, 국립현대미술관(MMCA) 덕수궁에서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무>이라는 전시로 다시 만났다. 한국인이자면 대다수가 익히 아는 이름이지만 의외로 MMCA 개관 이래 처음 열린 박수근의 개인전인데, 일단 전시 장소부터 터할 나위 없다. 소



설 <나무>에서 주인공 이정이 옥희도의 유작전을 보고 난 직후 망연하고 어린 가슴을 달래려 향한 곳이 바로 덕수궁 안 은행나무 벤치였다. 굳이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고즈넉한 정취를 품은 덕수궁관만큼 적소가 또 있을까 싶다. 내용 면에서도 MMCA에서 다시 보기 힘든 전시라 강조할 만큼 어렵게 모은 풍성함을 자랑한다. 현재 조사된 박수근 작품은 5백 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전시에 작가의 10대부터 말년을 아우르는 유화, 수채화, 드로잉, 삽화 등 총 1백74점과 다양한 자료를 선보이고 있다. 이 중 유화 7점, 삽화 12점은 그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작품이다. 올해 MMCA에 근현대미술 작품을 다수 기증한 이근희컬렉션까지 포함되어 콘텐트가 더욱 풍부해졌다. 전시는 MMCA 덕수궁관 1, 2층에 걸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밀레를 사랑한 소년', 2부 '미군과 전람회', 3부 '창신동 사람들', 4부 '봄을 기다리는 나무' 순이다. 연대 기적 구성이라기보다는 '독학', '전후(戰後) 화단', '서민', '한국미', 네 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전개하는 방식이다. 사실 박수근은 우리가 접하는 작품 수나 존재감에 비해 '전해진 이력'이 길지 않은 작가다. 강원도 양구 출생(1914년생)으로 부유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열두 살 무렵 밀레의 만종을 접하고는 화가의 꿈을 키웠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독학으로 그림을 익혀야 했다. 이후 26세에 결혼하면서 평양으로 이주해 평안남도 도청 사회과 서기로 일하기도 했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해 다시 남쪽으

로 향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 PX의 초상화가로 일하다 생계형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가 남한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겨우 13년 남짓이다. 피란민 신세로 전쟁 뒤 폐허가 된 서울에서 그림으로 먹고사는 건 당연히 힘들었지만, 묵묵히 그림을 그리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우리가 다는 몰랐던 박수근, 동서양을 품었던 거목

박수근은 자신이 동경했던 밀레가 그랬듯 주변의 소박한 풍경(초기엔 농촌, 전후엔 서울의 거리), 서민의 일상을 소재로 한 그림을 즐겨 그렸다. 같은 대상일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가장 진실한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한다. '20세기 한국판 밀레'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서민적', '토속적'이라는 수식어에 갇혀 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미술 전문가들은 말한다. 향토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에 매몰된 게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서구 모더니즘을 수용하고 현대 추상화 등을 탐구해 소화한 서양화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MMCA 덕수궁 전시에는 박수근이 수집하고 접한 회화책과 서적 등 각종 자료는 물론이고 파카소 등 당시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모사한 습작 등도 볼 수 있다. 여인과 나무, 일상 풍경 등 즐겨 다루는 소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 특히 전업 작가로서 몰두한 1950년대 이후에 그의 작업은 점차 독자적인 양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모노톤에 가까운 황갈색, 거친 질감으로 묘인 화면, 간결한 윤

곽선으로 정의된 형태 등 우리가 아는 박수근 스타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캔버스나 판지 바탕에 여러 겹(때로는 수십 겹까지)의 물감층을 쌓아 만든, 그를 일찍이 알아본 미국인 컬렉터 마리아 헨더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도자기를 연상시키는' 그 아름다운 스타일 말이다. 이제 박수근만의 미학과 동시대인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고매한 애린(愛鄰) 정신은 동서양의 접점을 품은 '거목'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 나무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고 했던 박완서의 글귀처럼 추위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양상이지만 의연한 나무가 아니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박수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보다 심도 있는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생전에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박수근 작품의 경매가는 이제 그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지만, 김환기 같은 미술가들의 명성을 감안하면 세계 무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맛있게 투박하며 토속적인 화풍의 작가로, 궁핍하게 살다 간 불운한 작가로 인식되어온 측면도 많다. 생계형 소품 작업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가 마음먹고 미술전에 출품하려고 작업한 대작은 압연히 달랐고, 당시 귀했던 유품물감을 나름 풍족하게 쓴 경우도 많았다는 게 학계 사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언뜻 단색조지만 조금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록, 분홍 등 원색이 곱게 숨겨진 작품도 꽤 있다. 박제되어 있는 작가로 보면 매력 없는 범이니, (세계에 알리기 전 밑작업으로) 우리 스스로가 다시 보고 잘 알아야 한다는 일침을 새겨들 때인 듯하다. **글 고영연**

1 지난 11월 11일 국립현대미술관(MMCA) 덕수궁에서 막을 올린 대규모 회고전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무>. MMCA 개관 이래 처음 열린 박수근 개인전으로 유화, 수채화, 드로잉, 삽화 등 총 1백74점의 작품과 다양한 자료를 덕수궁관 1, 2층에 걸쳐 선보이고 있다. 오는 3월 1일까지. 2 박수근 회고전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밀레를 사랑한 소년', 2부 '미군과 전람회', 3부 '창신동 사람들', 4부 '봄을 기다리는 나무' 순이다. 사진은 1부의 전시 작품 중 박수근의 장구장구는 <연(1956)>.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이근희컬렉션. 3 박수근이 수집한 미술 잡지(1천 500여 권)는 전업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한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미술 잡지를 사들이며 해외 동향을 접했다. 4 박수근, 나무와 두 여인(1962), 캔버스에 유채, 130 X 80cm, 리움미술관. 박수근과의 실제 인연으로 탄생한 박완서의 첫 소설 <나무>에도 등장하는 작품이다. 5 박수근의 독학 행보를 살펴볼 수 있는 1부의 전시 풍경. 개비가 기울면서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한 박수근은 서양화(전, 신문에 소개된 그림, 풍물 염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습작에 열중했다. 6 박수근, 노인들이 대(1962), 하드보드에 유채, 20.2 X 29.3cm, 미국 미군대령관 미술관. 7 박수근, 평양(1950년대 후반), 종이 유채, 20.4 X 26.0cm, 성신여자대학교미술관. 8 창신동 사람들을 주제로 한 3부의 전시 풍경. 박수근의 그림과 함께 1950~60년대 사재를 담은 한영수의 사진 작품을 볼 수 있다. 9 박수근의 고향 강원도 양구에서 작가가 즐겨 그렸다고 전해지는 느릅나무 가지가 보이는 4부 전시 공간. 10 4부를 수놓은 박수근의 작품 '고목과 여인'(1960년대 초반), 캔버스에 유채, 리움미술관. ※ 1, 4~10 이미지 Courtesy 국립현대미술관(MMCA)





SWAROVSKI

GIVE THE GIFT OF WONDER



(왼쪽)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스위트 클로버 링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 모티프로 우아하게
장식한 링으로, 클로버 앞에 스몰 다이아몬드 스톤
20개, 총 0.34캐럿을 세팅해 은은한 반짝임을
선사한다. 9백만원대, 문의 1668-1906
(오른쪽) 불가리 불가리 불가리 로만 소르베 링
18K 로즈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 7개, 총 0.27캐럿을
매치했으며, 더블 불가리 로고 장식에 비빔을 둔
심플하고 상징적인 디자인이 도드란 매력을 전한다.
3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왼쪽) 피아제 프제션 링 회전하는 18K 핑크 골드
밴드 중앙에 하프 문 새팅 0.04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아이코닉하면서도 클래식한 매력을
자랑한다. 3백만원대, 문의 02-3479-1802
(오른쪽) 티파니 아틀라스 X 클로즈드 내로우 링 티파니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 전면에 있는 아틀라스 시계의
로마자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나이프 에지가 새팅미를 더한다. 18K 로즈 골드 밴드에
세팅한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가 눈에 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fresh everyday

작아서 부담 없고 실용적인 뿐만
아니라 심플한 디자인에 존재감을
뽐어내는 스몰 다이아몬드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부쉐론 귀드로 클래식 인게이지먼트
슬리더 링 핑크 골드에 부쉐론만의 브라운
PVD를 결합해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한
매력을 자랑한다. 가운데에 0.2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02-772-3508
(오른쪽) 까르띠에 러브 링 그래픽적인
스크류와 부드러운 타원형 디자인으로 우아한
매력을 자아내는 링. 관습에서 벗어났고
시간을 초월한 열정적인 사랑의 상징이다.
다이아몬드 장식과 옐로 골드로 이뤄졌다.
4백80만원, 문의 1566-7277

(왼쪽) 쇼메 비 마이 러브 링 아이코닉한
발집 문양으로 이루어진 핑크 골드 밴드를
더한 링으로, 안쪽에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시크릿한 감성을
불어넣었다. 2백만원대, 문의 02-2039-3854
(오른쪽) 소피드 이이스 큐브 링 작은 얼음
조각을 이어 붙인 듯 기하학적이고 모던한 밴드
디자인에 1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세팅해 절제된 광채를 표현했다. 2백21만원.
문의 02-6906-3390 에디터 상영민



JOYGRYSON.CO.KR



JOY GRYSON

holiday WISH LIST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화려한 패키지를 자랑하는
홀리데이 리미티드 제품부터 로맨틱한 연말 무드에 어울리는 주얼리와 워치,
근사한 룩을 연출해줄 패션까지. 행복한 연말을 완성해줄 특별한 선물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oi min young**



sponsored by CARTIER®
이디디 1288만, 아쇼이 이시타르드 145만

(주얼리 / 왼쪽부터) LOVE 브레이슬릿에 스크루 모티프를 재현한 밴드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제품으로 클래식함에 우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기존 LOVE 브레이슬릿보다 얇아 스타일링하기에 레이어드할 수 있으며, 핑크 골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1백77개 세팅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못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던하지만 강렬하고 시크한 매력을 풍기는 자스트 앵글루 브레이슬릿. 18K 핑크 골드에 총 2.26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화려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자스트 앵글루 링 6백75만원. 드라이버로 스크루를 조여서 착용하는 독특한 방식의 LOVE 브레이슬릿 5백35만원. 기존 자스트 앵글루 컬렉션에 추가된 니크리스로 상투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주는 핑크 골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룩에 포인트를 준다. 8백35만원. 스크루 모티프 부분을 재현한 밴드 전체에 총 2.4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LOVE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모두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오브제 / 왼쪽부터) 화이트와 골드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지어내는 트레이로 바둑에 그려진 상징적 팬더 문양이 돋보이는 팬더 드 카르띠에 오벨 트링킷 트레이 73만5천원. 카르띠에가 재해석한 리본 모티프가 인상적인 화이트 컬러의 인트라세 드 카르띠에 주얼리 박스 2백36만원. 순수한 화이트 컬러에 골드 라인과 중앙의 레드 리본 문양이 돋보이는 인트라세 드 카르띠에 트링킷 트레이 50만원. 공간에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줄 팬더 드 카르띠에 화병 미디어 아트 모넬로 카르띠에의 상징인 팬더 문양과 그린·레드·화이트·골드 컬러 조화가 돋보인다. 1백44만원. 자유한 입상에 활기찬 분위기를 풍기는 팬더 드 카르띠에 펜슬 홀더 85만원. 체리 레드 컬러 상자 가죽에 체인 스트랩으로 마무리한 두블르 세 드 카르띠에 체인 백 3백21만원. 카르띠에의 상징적 모티프인 팬더가 앉아 있는 스노볼인 다이얼로 드 카르띠에 스노우 글로브 가격 미정. 모두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주드 리앙 펜던트 네크리스 3백만원대 **소베** 02-2039-3854. 옐로 골드를 빛줄 모양으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 슐람바제 칼렉션의 시글 로프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타피니** 02-6250-8620. 단순하고 평범한 뜻을 아름답고 간결한 주얼리로 탄생시킨 화이트 골드 소재 자스트 영 글루 브레이슬릿 9백60만원 **까르미에** 1566-7277.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무뎠던 성세한 띠, 차보라이트로 장식한 눈과 털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라디미르 르 사미디엄 링 6천만원대 **부세론** 031-5170-1177. 성세한 옐로 골드 비즈를 한 덩어리 엮어 만든 베를리 링 3백만원대 **반블리프 아벨** 1668-1906. 범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비늘 모양에서 착안한 다이아몬드 세팅 화이트 골드 소재 세르펜티 스킨 네크리스 1억2천만원대 **블가리** 02-2056-0170. 화이트 골드 오픈 밴드에 1천2백2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픈 링 브레이슬릿 1억1천650만원 **피아제** 02-3479-1802. 성세한 것털 모양 형태의 화이트 골드 밴드에 0.9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메그 피페스트파베 밴드 링 1천7백만원대 **스티븐스스터** 02-2231-1592

01

화이트 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세팅 로타스 플라워 3개로 장식한 로타스 펜던트 2천2백만원대 **반블리프 아벨** 1668-1906



09 화이트 골드 밴드에 옐로 골드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마이크로 이터널레 링 7백만원대 **부세론** 02-3440-5613



02

하트 세이프의 총 26.45캐럿 에메랄드와 총 77.19캐럿 말티 세이프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장식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02-6905-3330



04

0.51캐럿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3백14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것털 디자인의 화이트 플래티넘 드 펄라지 링 5천만원대 **부세론** 031-5170-1177



03

다이아몬드 세팅 세팅 밴드가 가운데 파베 세팅한 7캐럿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세퍼 세이프 양 끝에 달린 비즈까지 모두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50:50인 펜던트 1억8천만원대 **피아제** 1668-1874



05

슬림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2.0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모사 플렉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이아니** 02-515-1924

08

정교한 장미 모양의 화이트 골드에 총 3.4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디올 바카렐 라지 이어링 가격 미정 **다올 파인주얼리** 02-3480-0104



07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포인트 오브제를 매치한 옐로 골드 슐람바제 아이박스 클럽 브로치 가격 미정 **타피니** 02-6250-8620



06

옐로 골드에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와 블랙 스피들로 장식한 뒤 페어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한 옴브르 펄링스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프래드** 02-514-3721



(위부터 시계대란) 케이스 지름 39mm의 클레리크 7787
 문페이즈 워치 3천9백만원대 **브러시** 02-3479-1008
 44.6mm 지름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포르투가저 요트
 클럽 크로노그래프 워치 1천9백50만원 **IWC** 02-3440-
 5876. 100부의 1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와 초당 1회전을
 구현한 독자적 메카니즘을 갖춘 디파이얼 프라메로 21 로즈
 골드 4천9백만원대 **제노스** 02-310-5332. 지름 42.5mm
 케이스에 5.4mm에 불과한 얇은 두께가 특징인 패턴리모나
 레트로그래이드 데이-데이트 블루 다이얼 워치 5천9백만원대
바세넬 몬스터 02-3446-0088. 스틸-골드 소재의
 41mm 케이스와 풀리싱 브라운 다이얼이 돋보이는 옥토
 로마 1천7백만원대 **불가리** 02-2056-0170.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카보숑 첫 사마리아 1개를 세팅한 케이스 지름
 46.6mm에 두께 7.5mm의 스탠드 워치 2천9백60만원
카르띠에 1566-7277. 지름 42mm, 두께 4.2mm의
 브론즈 케이스가 돋보이는 샹젤리제 브론즈 블루 이반스
 1천9백만원대 **파타리** 02-796-1082



10
 방하늘을 연상시키는
 블루 다이얼에 베젤
 다이아몬드 세팅을
 더한 데피 미드-인
 1천9백11만원 **제노스**
 02-3277-0185

11
 옐로 골드 케이스에 베젤과 플
 라그에 다이아몬드 1백30개를
 세팅한 레인드 네이플 카블린
 89288A 8천2백48만원 **브러시**
 02-3479-1008

12
 케이스 지름 34mm에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가 돋보이는 칸스텔레이션
 코-엑스텔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9백만원대 **오메가** 02-3467-8632

13
 베젤에 다이아몬드 3줄을 더한 25x25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알함브라 참으로 장식한 참 워치
 2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14
 다이아몬드 세팅 케이스에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로즈 골드 소재 세르펜티
 스피가 8천9백만원대
불가리 02-2056-0171

15
 자개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베젤과 아워
 마커를 갖춘 다이얼트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
 9천9백23만원 **쇼파드** 02-6905-3330

16
 18K 핑크골드에 61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을 더한 라온라이트 길라
 인그레이빙 마더오브밀 3천2백만원대
피아제 1688-1874

17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더한 파베 다이얼이 돋보이는
 41mm 정사각형 케이스
카르띠에 02-1618-8830

18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옐리케이터 레드 스트랩을 매치한 오메가 워치
 3천1백만원대 **부셀라티** 02-3440-5613

(위부터 시계 방향으론) 카렌트 버클 플랫슈 신
 슬링백 1백51만원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나파 레더 디보션 골드 미니 백 가격 미정
플레시안 버나 02-3442-6888, 에메랄드 인터로킹 G 메탈 아이링 1백59만원 **구찌** 02-3452-1921
 미니 클레오 백 4백12만원 **프라다** 02-3218-5331
 골드 파니시 메탈 다음 시가든 병글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02-3480-0104, 마이프로 클라우드 클러치 가격 미정 **지미주** 02-3438-6107, 크리스탈 장식 앙가죽 미니 클러치 가격 미정 **미우미우** 02-3218-5331



레드 피라미드 클러치 2백40만원대 **보테가 벤테라** 02-3438-7682



토티이즈웰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생 로망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캐시미어 자지 코트 7백만원대 **재나XXX** 02-518-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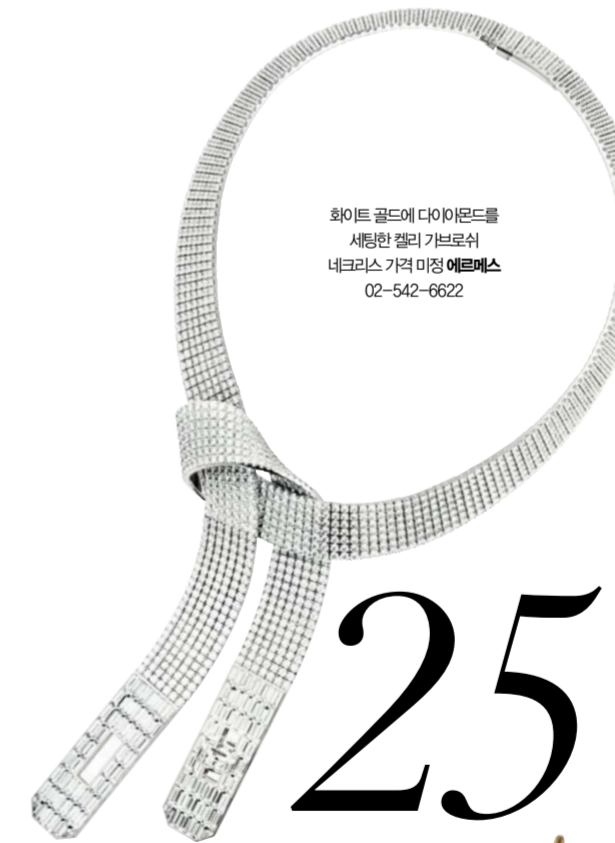
22

양가죽 트라이엠프 브라운 장갑 가격 미정 **셀린느** 02-549-6631



23

패드락 블랙 레더 펌프스 1백49만원 **폼 호드** 02-6905-3640



화이트 골드 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엘리 가브로쉬 네크리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02-542-6622

25

27

원티그린 트리아베카 3단 반지갑 15만8천원 **조이그리이스** 080-202-2002



26

크리시드 메탈 레더 이스트 웨스트 앵글리 1백73만원 **말버리** 02-3438-6140



24

메탈릭 슬라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보스 우먼** 02-515-4088



올리데이 시즌을 맞아 에스티 로더에서 특별하게 선보이는 기프트 세트. 기념과 선물을 유망하는 레드 배에 안비 아이 & 차크 팔레트 2종과 립스틱, 리퀴드 립, 그리고 마스크라 등 올리데이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제품을 담았고, 갈색톤을 포함한 베스트 스킨케어 라인 디럭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다채로운 제품을 담아낸 기프트 컬렉션으로 즐거운 겨울 축제 분위기를 만끽해볼 것! 2021 올리데이 볼록바스터 세트 15만원대
에스티 로더 문의 02-6971-3212



루즈 다움 마노디에르 아틀리에 오브 드림즈 코프레 세트 24만원대 **다움 뷰티** 080-342-9600

28



바카라 루주 540 엑스트레 70ml 52만원 **메종 프랑시스 카징** 02-6905-3769

29



페이스 파우더 마르셀 번더스 컬렉션 2021 18g X 2pcs 29만원대 **테코르테** 080-568-3111

32



31



스쿠 파우더 블러쉬 컴팩트 #103 16.5g 10만5천원 **스쿠** 02-6905-3369



루즈 G 드 갤럭시 더 립스틱 #34 골드 레드 3.5g 4만2천원대, 더 더블 미러 캡 #루비 스핑크스 4만9천원대 **갤랑** 080-343-9600

30



샹테카이 루마에르 아이 싰-바코크 2g 11만원 **샹카이** 070-4370-7511

33



35

에타제드 볼라에르 르 배드 크롬드 듀오 #002 8g X 2 15만원 **볼라에르** 02-910-502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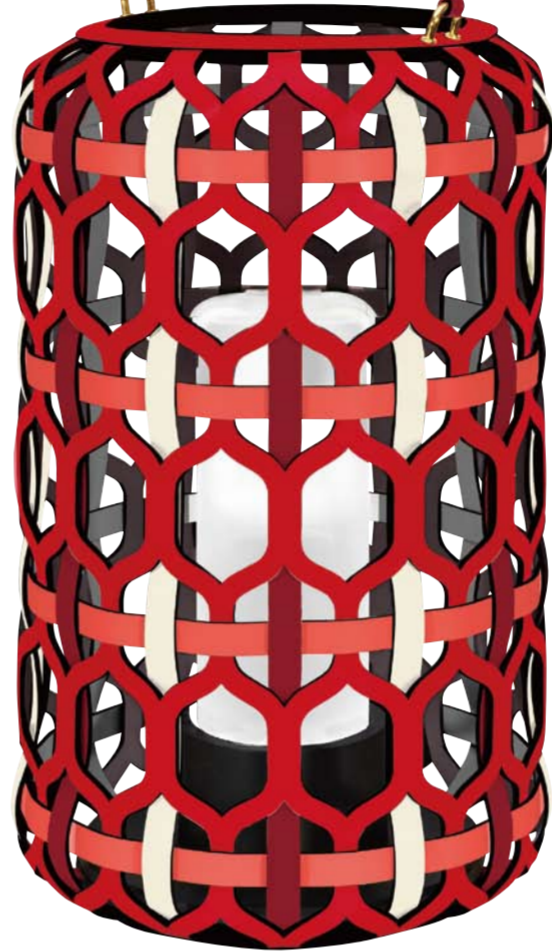
블루앤라임 부케, 엔디미온 공상트레, 할메디, 주니퍼 슬링, 퀘르쿠스 5ml로 구성된 즐리 미스쳐 8만5천원 **펜탈곤스** 080-363-5454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리스탈 조명 벨라 24만8천원 리문 1600-1547, 오르간 백셀 킷 미세나 위스키 디켄터 1백만원
바카라 02-3448-3778 크리스마스 넉 크래커 바스킷 200g
 가격 미정 **포트넘 앤 에이션** 02-310-1548, 팬더 카드파에
 스테이시-리 카드와 병투 가격 미정 **까르파에** 1566-7277
 스타 플루티드 플레이트 27cm 8만3천원, 스타 플루티드 밥
 플레이트 17cm 6만원 **로얄살루트** 02-749-2002
 생-루이 바블 컬렉션 그린 상채인 잔 30만원대, 그랑 아델라주
 컬렉션 디지털 포크 4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02-542-6622,
벨루가 텀블러 35만원 **바카라** 02-3448-3778,
 로얄살루트 21년 울트 20만원대 **로얄살루트** 02-3466-5700

37

자물란도 & 보르도토
 램프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
 02-3432-1854



38

블루 베네치아 가족으로
 포인트를 준 대리석 트레이
 가격 미정 **벨루티** 02-547-1895



39



파리에 주에 벨에포크
 가격 미정 **파리에 주에**
 02-3466-5701

40



베오사운드 2 GVA
 브라스 2백99만9천원
방안물음순
 02-518-1380



43

핀델라 미니 브라스
 1백만원대 **루이비통**
 02-6462-6262



42

베르나르도 노엘 불량 코프레
 세트 4pc 구성 46만원
베르나르도
 02-749-5644



41

44

알바이트 볼 로즈 골드 세트
 가격 미정 **아폴라**
 02-749-2002



45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티 케이스
 가격 미정 **디올**
 02-3480-0104



the classy Gift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프렌치 시크 감성의 셀린느, 그 독보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백들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네오난 박스 형태로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며 정교한 장식용 자물쇠가 플랩에 위치하고
내부는 3개로 나뉜 아코디언 형태로 활용도가 높다.
감촉이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이 특징인 **타부 백**
3백35만원. 스웨이 디자인과 블랙, 금장의 컬러
조화 등이 클래식하면서도 와이드 스트랩을 매치해
캐주얼함까지 아우르며, 부드러운 터치감과 견고한
킵스 스킨 소재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는 **핀 소프트**
16 3백35만원. 장이나 키링으로 사용 가능한 **에어팟**
프로 폴 인 크로세 1백33만원. 모두 셀린느.

(왼쪽부터) 가방에 디는 장이나 키링으로 사용 가능한 나일론
소재 **스트랩 키링** 49만원. 시그니처 모노그램 패턴으로 장식한
남성 라인의 캔버스 백, 셀린느 로고를 새긴 캐주얼한 감성의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실용성을 높인 **아바 백** 2백17만원.
높이가 3cm 정도인 마이크로 미니 사이즈로, 모노그램 패턴과
로고까지 셀린느의 감성을 담았다.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을 더해
크로스 바디, 숄더백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미니
트라이앵글 백 1백47만원. 모두 셀린느.



(위부터) 우아한 커브 라인으로 어깨에 무심한 듯 걸치기 좋은 초승달 모양의 셀린느 대표 백으로,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의 고급스러움과 블랙에 브라운 라인을 추가한 클래식함이 매력적인 **아바 백** 2백63만원,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무드를 자랑하는 셀린느의 대표 백으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며 수납공간 역시 넉넉해 활용도가 높은 **라지 플코 스트랩 백** 2백70만원, 모두 셀린느.



(위부터) 카드나 립스틱을 수납할 수 있어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메가나 액세서리처럼 활용하기 좋은 캔버스 소재 모노그램 패턴의 **미니 아바 백** 1백20만원, 비구니 형태의 캔버스 소재 백으로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수납이 용이하며 슬리는 물론 크로스 보디로도 연출 가능한 **스몰 바킷 백** 1백97만원, 유려한 곡선과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의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살린 백으로 짧은 끈으로 무심한 듯 손에 들거나 어깨에 푹 걸치면 단번에 프렌치 시크 룩이 완성되는 **로미 백** 3백35만원, 모두 셀린느, 문의 02-549-6631 에디터 **성정민**

Creative Journey

11명의 디자이너가 하나의 쇼를 통해 각자의 창조적 비전을 공유하는 몽클레르 지니어스의 '몬도지니어스' 프로젝트는 이번 시즌 밀라노, 도쿄, 상하이, 서울, 뉴욕으로 여정을 이어갔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각 도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창조성을 탐구하며,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엮어 세상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 그중 '도쿄'를 탐구한, 세르지오 잠봉(Sergio Zambon)이 이끄는 2 몽클레르 1952 남성 컬렉션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 MONTCLER



1 왼쪽 몽클레르 패딩 원단을 활용한 에르빈 부름의 작품 '팻 미니(Fat Mini)'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세르지오 잠봉과 2 몽클레르 1952 남성 컬렉션 모델들. 2 프레젠테이션에서 함께 소개한 작가들의 작품은 이트시(Artsy)에서 열리는 자신 경매로 이어진다. 다양한 인종과 트랜스젠더가 패션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더 필름 패스(The Film Path)'를 대표해 비영리단체인 프리 더 워크(Free the Work)도 함께했다. 3 경쾌한 컬러감이 도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대변한다. 4 동사상의 특이점을 한데 합쳐 재치 넘치는 의문을 쿠션의 형태로 간결하고 함축적인 비주얼로 표현한 아나스타시오의 작품 '컬로우(Cal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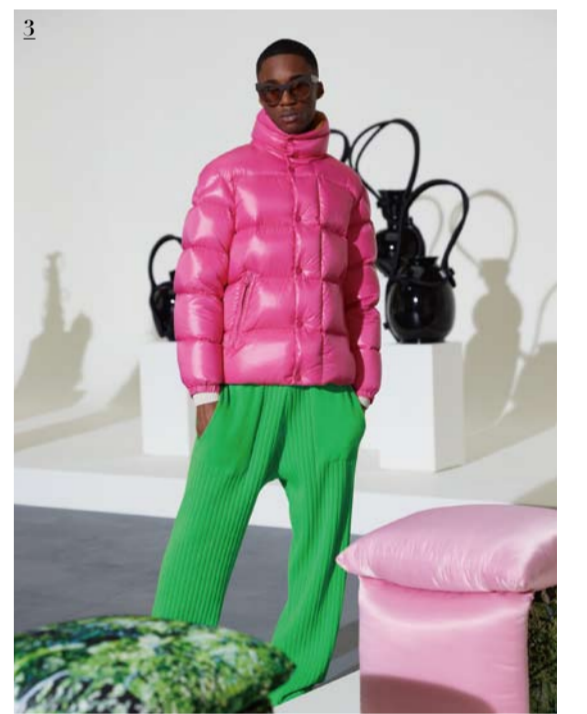
2 몽클레르 1952 남성 라인을 담당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르지오 잠봉(Sergio Zambon)은 몽클레르 지니어스 컬렉션을 준비하며 도쿄라는 도시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역동적인 도시의 단단한 골조 너머,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삶에 스며든 환경 중심적 사고방식에 닿았다. 의복의 본질에서 디테일은 달아내고 편안함을 기반으로 부드러운 실루엣과 볼륨감,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로 도쿄 특유의 동시대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구축했다. 예술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잠봉은 밀라노 중앙역으로 관중을 초대해 컬렉션을 선보였다. 현대미술 작가이자 그의 자선인인 안드레아 아나스타시오(Andrea Anastasio), 에르빈 부름(Erwin Wurm), 그리고 프렘 사히(Prem Sahib)와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의복 그 이상의 의미를 전했다. 작자 각각의 작품은 서로 다른 시기를 절충하며 일상의 현실을 완전히 뒤엎고자 하는 이상향을 전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특과 함께 소개한 작품들은 함축적인 비주얼로 표현한 이트시(Artsy)에서 열리는 자신 경매로 이어진다. 경매는 다양한 인종과 트랜스젠더가 패션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더 필름 패스(The Film Path)'를 대표해 비영리단체인 프리 더 워크(Free the Work)와 함께한다. 문화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발현하는 것을 마련했다.

interview with SERGIO ZAMBON

스스로를 패션 인류학자이자 연구원으로 정의하는 세르지오 잠봉은 인류학적 호기심과 열렬한 예술 애호가로서의 태도에 접근한다. 대중문화에 대한 특유의 풍자로 가득한 기침없고 직설적인 톤을 유지하는 그의 사연으로 짧은 대화를 나눴다.

Q 질문에 앞서 인사를 전하고 싶다. 비록 텍스트지만 당신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매우 잘 지내고 있다. 두 계절 사이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맡겨 줄 때는 중이대다. Q 당신이 생각하는 몽클레르? 몽클레르 지니어스 프로젝트는 세상과 세상을 잇는 가장 신성하고 유쾌한 패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동시대적인 옷장에서 아이코닉한 형태를 차치하는 이 브랜드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 Q 이번 협업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나? 테마를 선정하고 트렌드를 제안하는 데 있어 나는 매우 광범위하게 연구한다. 우리 모두 예상치 못한 패턴을 겪었다. 몽클레르의 기능성과 유행에 앞선 사고방식의 조화를 표현했다. 게다가 편안함이라는 테마는 내 컬렉션에서 중요한 요소다. 니트 소재의 트랙 슈트, 리브 트라우저, 담요를 연상시키는 포근한 팬츠와 패딩, 그리고 편안함을 고려한 슬리퍼 등을 준비했다. 룩들은 직관적으로 생기면서 깔끔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불규칙한 칼팅 패턴의 울 볼러 루에서 사냥해, 고도의 기술력을 적용한 빛 반사 패딩, 그리고 그린과 밝은 채도의 컬러를, 핑크를 한데 모아 컬러를 선명하게 배치하며 일본 대도시 느낌을 구현했다. Q 가장 아끼는 물건 한 가지만 소개해달라. 무형의 것을 이야기해도 되나? 그렇다면 호기심이라 이야기하고 싶다. 즉, 늘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 Q 이번 2 몽클레르 1952 남성 컬렉션은 도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들었다. 도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쿄란 도시의 어느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옷에는 어떻게 적용했

는지. 이전에 LA를 테마로 컬렉션을 꾸렸던 때처럼, 나는 일본의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했다. 다른 아티스트들의 시선을 보고 공유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이번에는 카로 아키펀(Karo Akpokiere)과 함께했다. 카로의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인 드로잉에는 도쿄라는 도시의 역동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몽클레르 로고나 뉴스 프린트를 만화처럼 해체해 아이템에 팝적인 요소를 기입했다. Q 이번 컬렉션 발표 장소, 상황 모두 흥미롭다. 현대미술 작가인 에르빈 부름, 안드레아 아나스타시오, 프렘 사히와 함께 큐레이팅해 밀라노 중앙역에서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번 컬렉션과 어떤 연관이 있나? 이들과 작업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몽클레르와 2 몽클레르 1952 남성 컬렉션의 마학과 연결된 작가들을 선호했다. 나는 예술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다. 먼저, 자녀를 부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난 그의 작품에 항상 빠져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아나스타시오를 만나게 되었고, 로마의 갤러리아 로칸오널에서 프렘의 쇼를 본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기도 했다. 공동체 의식과 현실감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Q 그렇다면 이번 프레젠테이션 공개 이후 어떤 반응을 기대했나.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패션을 이루는 다양한 창의적 분야에서의 흥미로운 피드백을 기대했다. Q 전 세계 패션이 한창이던 모이는 패션 워크와 리웨이브를 통해 컬렉션을 선보이는 방식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동시 생중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새로운 것에 매우 열려 있다.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대면으로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느끼는 감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Q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단지 하나의 콘셉트에만 국한해 작업하지 않고자 한다. 여러 비전을 뒤섞어 새롭게 만들어 낸 결과물에서 매력을 느낀다.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 세상의 복잡다단함을 반영하려 한다. 그런 에너지로 사람들이 내 옷을 입었을 때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 Q 생기 넘치는 컬러와 실루엣, 입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한 감촉. 당신의 옷을 보면 웬지 모르게 기분 좋은 에너지가 샘솟는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기발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가. 색은 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여유로운 분위기와 다채로운 방식, 그리고 컬러 모두 내기 여러 지중해 국가에서 자랐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Q SNS 경향을 살펴보니, 스스로를 패션 인류학자 & 연구원으로 정의했다. 어떤 의미인가? 스타일 표현에 있어 문화적 요인과 그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에 대한 탐구심을 의미한다. 나 자신이 여러 요소를 섞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연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다양한 패션 하우스, 매우 강하게도 리서치한 매종 하우스부터 이크비 스투디오 같은 쿨한 필드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은 몽클레르에서 선보일 차례다. Q 인터넷서플 워런스 데이, 페미니스트 운동 등 SNS를 통해 진화하는 포스트링이 눈길을 끈다. 패션 외에 있어서는 어떤 주제에 의해 움직이나(옷을 제외하면 어느 것에 관심이 있나). 나는 단지 그 게시물에 대한 주제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Q 마지막 질문이다. 사연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 무엇을 할 계획인가? 2023 S/S 시즌 준비를 위해 워런 부사와 미팅을 해야 한다. 조금 늦었지만 때문에 이런 서둘러야 한다. 하하. 문의 080-311-0000 메디터 이주희



Historical Heritage

2백60년의 헤리티지와 아카이브 피스로 탐구해본 경이롭고 황홀한 바세론 콘스탄틴의 하이 워치메이킹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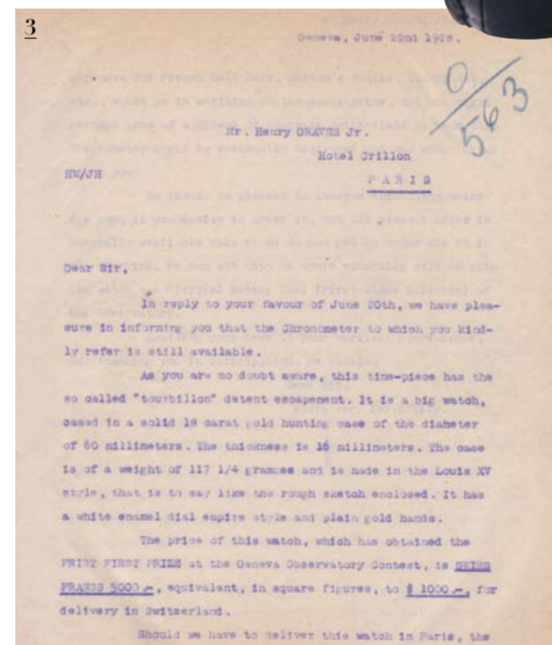
‘독보적인 기술력과 상징적인 디자인은 정확성에 의해 완성된다’는 신념 아래, 시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제품을 여럿 남긴 바세론 콘스탄틴은 단순한 ‘시계 제조사’로만 언급하기 어렵다. 장인들의 손을 거쳐 진정한 오토 오를로제리의 정수를 구현하며 절제된 품격, 과시보다는 지식에 대한 갈망, 내재된 자연스러운 세련미가 어우러진 예술적인 컴플리케이션으로 고유한 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1755년 창립해 무려 2백6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쌓아온 시계 업적을 다섯 가지 워치메이킹 기술을 통해 살펴봤다.

미묘한 오차를 보정하는 초정밀 기술, 투르비용

투르비용은 시간 표시와 함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시계학적 관점에서 컴플리케이션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분명 복잡하고 매력 있는 기계식 시스템인 것은 확실하다. 1795년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개발했으며, 지구의 중력으로 인한 속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처음 고안되었다. 레귤레이팅 시스템으로서 이 메커니즘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추구하는 크로노메트리 시계뿐만 아니라 그랑 컴플리케이션 모델의 엄선된 구성 요소로도 충분히 고려될 만큼 스스로 높은 가치를 입증한다. 바세론 콘스탄틴 아카이브에서 투르비용 포켓 위치를 처음 언급한 것은 1901년이다. 매종에 보낸 한 고객의 주문 서신에서 발견된 내용이 이를 보여준다. 그는 투르비용 이스케이프먼트, 더블 크로노그래프, 그랑 소네리와 프티 소네리, 미닛 리피터, 문페이즈와 파워 리저브를 갖춘 페페추얼 캘린더 타임피스를 주문했고, 당시엔 시간 측정 기능(정밀 타임키퍼 인증세를 인증받기 위해 제네바 천문대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한 타임피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할 기회였다. 당시 매종의 위엄은 미국의 은행가 헨리 그레이브스 주니어(Henry Graves Jr.)와 그의 인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가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기업가 제임스 워드 팩커드(James Ward Packard)와 벌인 ‘경쟁’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 소유에 대

한 열망을 펼쳤고, 1928년 바세론 콘스탄틴 투르비용 시계가 제네바 천문대에서 정확성 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헨리 그레이브스 주니어와 매종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이 모델을 자신의 컬렉션으로 소장하고 싶어 했다. 헨리 그레이브스와 바세론 콘스탄틴이 주고받은 서신은 이 기간에 쓰인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인그레이빙하며 이 시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다. 1927~28년 제네바 천문대 시간 측정 대회에서 1등 수상(866포인트) - No. 401562 - 헨리 그레이브스 주니어 - 뉴욕 - 바세론 콘스탄틴, 스위스 제네바. 헨리 그레이브스와 바세론 콘스탄틴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세론 콘스탄틴 아카이브에 보존된 서신이 증명하듯 위대한 수집가로 대상으로 한 매종의 제안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숙련된 기술을 적용해 극도로 복잡한 시계를 제작하며 새로운 차원을 맞춘다. 그중 일부 시계에는 당시 위대한 시계 수집가로 알려진 파티알라(Patjala)의 왕이 구매한 1917년 포켓 위치 같은 투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 후반, 바세론 콘스탄틴은 투르비용과 미닛 리피터의 전설적인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한 손목시계를 위한 새로운 칼리버를 개발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번째 작품은 1992년 30050 모델과 함께 제작했는데, 이는 투르비용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복잡한 시계를 제작하는 데 시발점이 된다. 이 레귤레이팅 메커니즘은 1998년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에 복잡한 기계 무브먼트 전용 워크숍을 갖춘 매뉴팩처를 설립하며 더욱 강화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말테(Malte) 컬렉션의 배럴형 무브먼트를 위한 투르비용 칼리버를 개발하는 것. 회전하는 레귤레이터를 위한 숙련된 기술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응용 분야를 찾았다. 그중 창립 2백50주년을 기념해 4개의 배럴로 2백50시간이라는 놀라운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생 제레메 페페추얼 캘린더를 더해 선보인 투르비용(칼리버 2250), 실린더 밸런스 스프링을 적용한 2축 투르비용(칼리버 1990), 페리페럴 로터를 탑재한 최초의 셀프 와인딩 인하우스 투르비용(칼리버 2160)이 포함된다. 이 모든 성취의 중심에는 시계 과학을 예술적 형태로 끌어올린 매력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2015년 창립 2백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포켓 위치인 레퍼런스 57260 역시 이러한 작품을 기념하는 모델이다. 57개의 컴플리케이션에는 중력의 영향을 조절하는 구형 밸런스

스프링을 갖춘 매우 진귀한 3축 투르비용을 탑재해 시간 표시가 착용자의 위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9년에는 매종을 상징하는 오버시즈 컬렉션에 투르비용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매종의 숙련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년 후 울트라-신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2160에 블루 래커 다이얼을 장착한 18K 5N 골드 버전의 오버시즈 투르비용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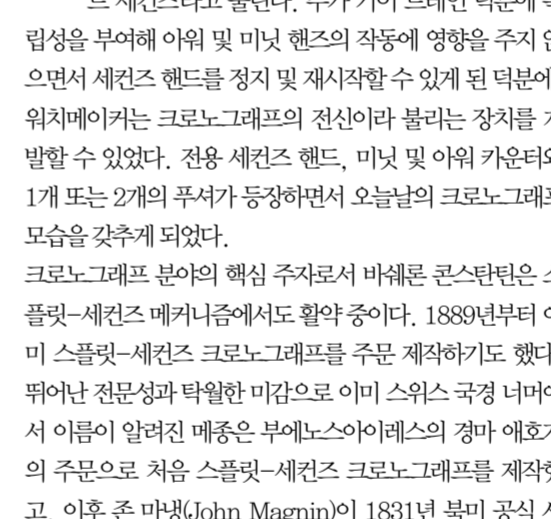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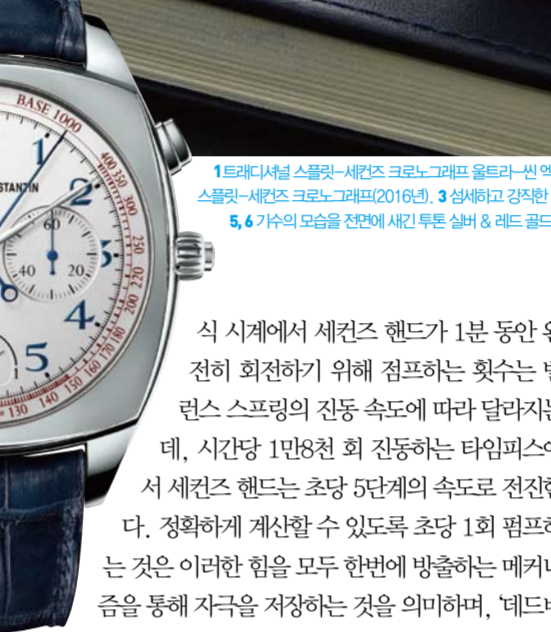


1 오버시즈 투르비용 위치. 칼리버 2160을 탑재한 모델(2021년). 2 창립의 날과 다스클레이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션을 탑재한 링크 골드 말테 투르비용 손목시계. 3 1928년 당시 워치 수집가로 알려진 헨리 그레이브스 주니어가 매종에 보낸 주문 제작 서신. 4 칼리버 2160의 제작 과정. 5 컴플리케이션 투르비용 포켓 위치(1990년).



sponsored by VACHERON CONSTANTIN

기계식 메커니즘의 역작, 마스터 크로노그래프 기술
역작으로 간주되는 크로노그래프 기술은 쉽게 말하자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계기 또는 시계다. 시간을 표시하는 바늘 외에 초와 분, 시를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바늘을 갖추었다. 스타트/스톱 버튼과 리셋 버튼으로 조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개의 버튼만으로 조작하는 모노 푸셔 크로노그래프도 있다. 다이얼이나 베젤에 속도나 거리, 맥박을 잴 수 있는 눈금을 새기기도 한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으로 작동하는 짧은 시간 측정은 메커니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요구되기에 시계학적으로 제작하기 가장 까다로운 컴플리케이션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 기술은 19세기 초 콤테르 드 티에스(Compteur de Tierces, 제3의 측정기)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1838년에 소개한, 중간스플릿 시간을 계산하는 스플릿-세컨즈 기능을 비롯해 수많은 혁신을 거치며 발전했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이러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874년 최초로 알려진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였다. 그때부터 매종은 크로노그래프뿐 아니라 워치메이킹을 선도하는 이 기능을 통합한 그랑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두각을 드러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매종의 오토 오를로제리의 정수를 온전하게 구현한다. 이 시계의 기능은 짧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정확성과 확실한 신뢰성, 그리고 내구성이 요구된다. 이들은 모두 크로노그래프에서 점진적으로 성취하고 개선되며 바세론 콘스탄틴이 특화해온 측정 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성이 되었다. 크로노그래프 제작에는 에너지 관리는 물론, 원활한 진행과 정확한 작동이 필수적인 메커니즘 구성 측면에서 상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거기 에 스포츠의 위업과 과학적 발견에서 시간 측정이 필수 요소가 되면서 시계의 정확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순수한 우아함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시계를 제작하고자 하는 매종의 열망은 1872년부터 정기적으로 제네바와 뇌샤텔 천문대를 비롯해 영국과 미국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정확성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매종의 시계들은 주로 금메달과 1등을 수상했다. 매종의 시계 조정 전문가(Adjuster)들이 이러한 워치메이킹 대회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으며, 그들 중 한 명인 에드먼드 올리버(Edmond Oliver)는 크로노미터 기술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제네바 천문대 대회에 출품한 여러 포켓 위치는 정확성에서 뛰어난 면모를 자랑했고, 조정 전문가로서 또 다른 기록 보유자 헬렌 자케르(Helene Jacerd)를 양성하기도 했다. 크로노미터 성능은 매종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 ‘크로노미터 로열(Chronometre Royal)’이 이러한 명성에 크게 기여했다. 1907년 첫선을 보인 이 포켓 위치를 기반으로 전통성을 추구하며 한 세기에 걸쳐 이룬 국제적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끊임없는 연구였다. 1907 모델의 무브먼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매뉴팩처의 R&D 부서에 고용된 뛰어난 워치메이커 알버트 펠라톤(Albert Pellaton)이 개발했다. 세 번의 1등급 인증, 여섯 번의 1등 수상 등 다양한 시간 측정 대회에서 상을 거머쥐며 성공을 이어나갔다. 매종에서 보존한 최초의 크로노그래프는 1819년 탄생했다. 시간 표시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세컨즈 핸드가 정지했다가 재시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적용한 시계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생산에 대한 명성을 구축한 매뉴팩처의 업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였다. 기계



식 세계에서 세컨즈 핸드가 1분 동안 완전히 회전하기 위해 점프하는 횡수는 밸런스 스프링의 진동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간당 1만8천 회 진동하는 타임피스에서 세컨즈 핸드는 초당 5단계의 속도로 전진한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초당 1회 펄프하는 것은 이러한 힘을 모두 한번에 방출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지극히 정교한 것을 의미하며, ‘데드비트 세컨즈’라고 불린다. 추가 기어 트레인 덕분에 독립성을 부여해 아이 및 미닛 핸즈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컨즈 핸드를 정지 및 재시작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워치메이커는 크로노그래프의 전신이라 불리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 전용 세컨즈 핸드, 미닛 및 아이 윈도우와 1개 또는 2개의 푸셔가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크로노그래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크로노그래프 분야의 핵심 주자로서 바세론 콘스탄틴은 스플릿-세컨즈 메커니즘에서도 활약 중이다. 1889년부터 이미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를 주문 제작하기도 했다. 뛰어난 전문성과 탁월한 미감으로 이미 스위스 국경 너머에서 이름이 알려진 매종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마 애호가인 주머니로 처음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했고, 이후 존 마닝(John Magnin)이 1831년 북미 공식 사장이 된 이후 이 모델은 컴플리케이션 중 가장 슬림한 두께 5.2mm의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시계 전체 두께는 단 10.72mm에 불과하다. 포드레킹 미닛 핸드를 통한 짧은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이는 2020년 출시한 캐비노타에 그랑 컴플리케이션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 템포와 마찬가지로 매종의 연구 결과와 혁신을 담은 역작으로 간주된다.

1 트레이시블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 울트라-신 액션스 플래티넘 컬렉션(2021년). 2 창립 2백60주년 기념으로 선보인 하모니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2016년). 3 상세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을 이룬 칼리버 3500. 4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Ref. 1441의 아카이브 사진(1917년). 5, 6 가수의 모습을 전면에 새긴 투톤 실버 & 레드 골드 스플릿-세컨즈 크로노그래프 포켓 위치(1889년).



시간을 알리는 아름다운 선물

소리로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인 스트라이킹 기술은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알리기 위한 실용적인 이유로 스트라이킹 워치를 처음 고안했고, 가장 오래된 리피터 스트라이크 워크 중에서도 최초는 17세기 말에 처음 개발된 쿼터 리피터 시계다. 밸런스 스프링의 발명으로 마니한 드를 도입하면서 시계는 더 이상 시간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5분 단위 이상으로 분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워치메이커들이 어둠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 제작에 집중하면서 매종 역시 이 같은 도전에 착수해 1819년 독립적인 데드비트 세컨즈를 탑재한 쿼터 리피터 시계가 스트라이킹 위치의 전신이 된다. 매종의 제작 명부에는 1806년 최초의 리피터 위치가 언급되어 있다.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인디케이터를 적



1 2013년 선보인 페트리오니 마니 리피터 울트라-씬. 두께가 8.09mm에 불과한 초박형 워치다. 2 캐비노티에 심모니아 그랑 소네리 - 교향곡 제6번(2019년). 3 매종의 메타데로 기술을 집결한 캐비노티에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베르.

도 대체할 수 없다.

스트라이킹 위치는 초부터 바세른 콘스탄틴 유산의 일부였다. 창립자 장-마크 바세른은 1744년 견습이 끝날 무렵 최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휴대용 알람 시계를 제작한 피르스가 인증받으며 워치메이커로 거듭났고, 이는 후에 알람 시계와 리피터 타임피스, 그랑 소네리 모델을 포함한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타임피스에 집중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매종의 워크숍은 리피터 시계 제작 1세대부터 참여했으며, 최초의 레퍼런스에 대한 기록은 1806년부터 시작된다. 이어 메종은 1811년 프랑스에서 필요에 따라 2개의 음을 연주하고, 최고의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뮤직리피터 시계를 선보였다. 아카이브에 보관된 서신에서 알 수 있듯, 메종은 19세기 후반 루마니아 여왕과 인파타 이사벨(Infanta Isabell) 스페인 공주 같은 명망 높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스트라이킹 위치를 제작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이들면서 진정한 황금기를 경험한 매종의 역사에는 여러 탁월한 시계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점에도 거주하는 스위스인들이 푸아인 왕에게 헌정한 시계와 그의 아들 파루크 왕이 스위스를 방문한 후 처남을 통해 획득한 시계가 여기 포함된다. 이 모델은 옐로 골드 마스터피스 로 카리움을 탑재한 마니 리피터, 3개의 공을 장착한 그랑 소네리와 프티 소네리 메카니즘, 알람 시계, 스물셋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페페추얼 캘린더, 문페이즈와 월령을 표시하는 인디케이션을 포함한 14개의 컴플리케이션

아르데코 사조가 품미하던 모던 시계사를 대표하는 컴플리케이션

레트로그라이드 기술은 기존 전통적 시간 표시 기능을 능가하고자 하는 워치메이커들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시곗바늘이 원이 아닌 부채꼴이나 반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늘이 끝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방식의 시간 또는 캘린더 인디케이터로 대체 가능하게 한 다이얼 배열이다. 시, 분, 초 또는 날짜 같은 주기적인 시간 표시를 위한 레트로그라이드 디스플레이 외에도 스워핑-타임이라 불리는 파워리저브 같은 형식도 있다. 정밀 인디케이션을 동반하기도 해서 극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술력을 대표하기도 한다. 바세른 콘스탄틴에서 정밀 디스플레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24년이다. 1930년대 중반 강렬하고 창의적인 워치메이킹이 주도하던 시기에 매종의 레트로그라이드 디스플레이는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시계와 달리 레트로그라이드 핸드는 전용 휠과 직접 맞물리지 않는 대신 스프링과 피아연을 장착한 오프센터 아바에 위치한다. 이러한 유형의 메카니즘은 특히 충격과 마모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엄격한 원칙이 요구되는데, 부품에 더 큰 인디케이터는 6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간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중반 독일에서 제작된 레트로그라이드 데이트를 탑재한 천문 파르계 시계가 상징적인 레트로그라이드 피스로 언급되고 있지만, 워치메이킹이 단순한 포켓 워치 코드에서 벗어난 것은 20세기 초이고, 광란의 1920년대에 접어들며 레트로그라이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스페셜 디스플레이가 큰 인기를 얻은 소위 '아르 데코' 시대라 불리는 이때부터다. 당시 아르 데코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창의적 시교를 강조해 전통 레트로그라이드나 정밀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독창적인 케이스와 다이얼 제작이 추종을 이했다. 매종은 이러한 예술적 움직임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자유로운 시계 스타

션으로 구성되어 제작에만 무려 5년이 소요되었다. 이후 기 뒤 보외루브레(Guy du Boisrouvray) 백작에게 특별 주문을 받아 한터 타임 케이스에 알람, 페페추얼 캘린더, 스물셋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3개의 공으로 구성된 마니 리피터를 장착한 옐로 골드 시계를 제작했다. 이 모델은 2015년까지 매종에서 제작한 시계 중 세 번째로 복잡한 시계로 남았다. 수 세기에 걸쳐 이어온 극도로 복잡한 타임피스를 향한 매뉴팩처의 열정은 캐비노티에 부서에 영속되어 헤리티지를 이어간다. 2005년, 매종은 창립 2백5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초로 8백34개 부품으로 구성된 16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양면 디스플레이의 '뚜르 드 릴' 손목시계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창립 2백60주년을 기념해 57개의 기능을 갖추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로 인정받은 레퍼런스 57260을 선보였다. 이 두 타임피스의 다양한 시간, 캘린더 및 천문학 기능 중에서도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마니 리피터 형태로 존재하며, 레퍼런스 57260은 5개의 공을 울리는 웨스트민스터 차임과 알람 기능을 갖춘 그랑 소네리 및 프티 소네리 메카니즘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2020년 라 무지오 뒤 랑을 테마로 한 캐비노티에 컬렉션의 스트라이킹 위치도 빼놓을 수 없다. 매종 역사상 최초의 그랑 소네리 손목시계인 '심모니아 그랑 소네리 1860' 시계를 떠올리게 하는 '심모니아 그랑 소네리 - 교향곡 제6번' 시계는 미술 케이스에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악보를 양각했다. 울트라-씬 칼리버 제작에서도 스트라이킹 기술 적용은 이어졌다. 두께 3.25mm로 1990년 선보일 당시 가장 슬림한 무브먼트로 세계 기록을 세운 1755 무브먼트를 비롯해, 개발 과정에서 무려 4년이만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013년 가장 슬림한 두께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페트리오니 칸텔페리리 칼리버 1731을 탑재한 모델도 있다.

일을 선보이는 데 망설임 없이 합류했다. 스페셜 레트로그라이드 디스플레이는 아르 데코의 미학적 원칙을 완벽하게 반영한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내던 1920년대부터 바세른 콘스탄틴에 의해 첫 황금기를 누렸다. 위상을 드높인 시계로는 더블 레트로그라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1930 브라영 래흐(팔을 공중에 든) 포켓 워치가 대표적이다. 10시 방향의 푸셔를 누르면 인그레이빙 및 에나멜 처리한 골드로 표현한 중국인 마술사의 팔이 위로 올라가 시와 분을 표시하는 유쾌한 방식으로 시간을 알려준다. 매종의 레트로그라이드 아카이브에 있어 '돈 판초' 시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1930년대에 의뢰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돈 판초(Don Pancho)라는 별명을 얻은 이 타임피스는 194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단 3개의 손목시계 중 하나로, 마니 리피터와 캘린더 인디케이션, 그리고 레트로그라이드 핸드가 결합되어 있다. 주문자의 요청을 실현하는 데는 무려 4년이나 소요되었다.

레퍼런스 36260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모델은 옐로 골드 토노계 손목시계로, 12시 방향의 독창적인 크라운과 우측의 전용 슬라이드 피스로 작동하며, 낮은 음으로 울리는 마니 리피터를 적용했다. 스물 세컨즈 카운터에서 요일을 표시하며, 중앙의 레트로그라이드 핸드로 날짜를 표시한다. 케이스 백에는 주문자 프란시스코 마르티네즈 리브(돈 판초의 아내)이 새겨져 있고,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5개의 동일한 스트랩을 제공했다. 다양한 컴플리케이션 손목시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제작된 시계라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어지지 않는다. 매종의 손목시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로 낙찰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오랜 공백 끝에 1990년대 기계식 손목시계가 다시 유행 극도에 합류하며, 이러한 유형의 컴플리케이션도 함께 부활해 바이-레트로그라이드, 트라이-레트로그라이드, 그리고 보다 더 복잡한 디스플레이로 한층 정교해졌다.



1 16개의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뚜르 드 릴(2005년). 2 페트리오니 페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2011년). 3 트리를 캘린더와 문페이즈를 탑재한 초콜라토네 옐로 골드 스퀘어 손목시계(1954년). 4 24시간과 낮과 밤을 표시하는 두 반구를 3D 형식으로 묘사한 캐비노티에 이말리의 페페추얼 캘린더(2021년). 5 48개월 페페추얼 캘린더와 문페이즈를 적용한 더블 사이트 워치(1884년).

인류와 우주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아스트로노미컬 워치

천문학적 시계는 달과 별, 행성의 움직임과 방향에 중점을 둔 그랑 컴플리케이션 시계다. 우주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우주의 진귀한 전문성을 입증한다. 매종은 초창기부터 컴플리케이션과 결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캘린더 디스플레이와 문페이즈, 월령 인디케이션을 포함한 천문학적 기능을 적용하는 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에 따라 천체의 움직임,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능과 다양한 수준의 복잡성을 제공할 수 있는 타임피스를 여러 시대에 걸쳐 탄생시켰다. 손목시계의 천문학 기능에는 그레고리력의 특이성과 관련된



인디케이터, 별의 움직임과 관련된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포함된다. 시간을 알리는 주요 기능 외에도 가장 복잡한 기능에는 월식 및 일식 예측 시스템, 지구에서 바라본 별의 위치, 천체 디스플레이(동지, 하지, 계절), 황도대, 조도 표시, 일출 및 일몰, 낮과 밤의 길이, 달의 연간 편차를 알려주는 기능 등이 있다. 이 모든 기능 중 상당수는 특정 위치에 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흔한 천문학적 시계에는 다음과 같은 인디케이터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다. 그랑 컴플리케이션으로 일컬어지는 '페페추얼 캘린더'는 월의 길이와 윤년 주기의 불규칙성을 고려해 거의 무한한 기간(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평년 제외)에 정확한 날짜를 표시할 수 있는 워치메이킹 최고의 기능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기술력을 구현하기 위해 무브먼트는 4년에 해당하는 1천4백61일을 기억해야 한다. 메카니즘의 핵심 요소는 각기 다른 메일의 날짜를 프로그래밍한 월 캠프이다. 일반적인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는 24시간에 한 눈금씩 이동하는 59개의 톱니 휠로 구동하는 2개의 달이 있는 디스크로 구현된다. 다이얼에 표시된 달의 주기는 29.5일인 반면, 실제 달의 주기는 29일 12시간 44분 2.8초이기에 2년 7개월마다 조정해야 하는 이러한 유형의 메카니즘에서는 1일의 오

차가 발생한다. 정확한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시계는 1백35개의 톱니를 갖춘 휠을 장착해 달의 주기 오차가 1백22년에 단 하루로 줄어든다. 또 별의 모습을 표현하는 스카이 차트가 있다. 스카이라인 에 해당하는 부분은 타원으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회전하며 실시간으로 하늘을 보여준다. 이 회전은 행성시에 따라 계산되어 평균일보다 3분 56초 짧은데, 기술적으로 가장 간단한 해결 방안은 배럴에서 레굴레이팅 시스템까지 무브먼트에 포함된 2개의 키네틱 체인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약간 더 빠른 형성시의 속도로 구동한다. 20세기에 걸쳐 바세른 콘스탄틴은 포켓 위치에 페페추얼 캘린더를 더한 컴플리케이션에 클래식하고 우아한 접근 방식을 1960년대까지 충실히 반영한다. 이 시대에는 마니 리피터, 크로노그래프, 그리고 문페이즈와 월령을 표시하는 페페추얼 캘린더를 탑재한 1946년의 골드 포켓 워치 등 특별한 작품이 등장했다. 1955년 두께가 1.64mm에 불과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03을 선보이면서 진정한 위업을 달성했고, 이후 1983년 바세른 콘스탄틴이 선보인 울트라-신 손목시계에 적용한 최초의 페페추얼 캘린더의 기반이 된다.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를 더한 트리를 캘린더와 레트로그라이드 캘린더 인디케이션이 매종의 위대한 전통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페페추얼 캘린더는 현재 페트리오니와 트레디셔널, 오버시즈 컬렉션에서 인기 높은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2019년 선보인 '트레디셔널 트윈 비트 페페추얼 캘린더'에서 두드러진다. 서로 다른 리듬이 모드로 속도를 높출 수 있어 최고 65일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한다. 클래식 버전에서 페페추얼 캘린더는 바세른 콘스탄틴의 변하지 않는 전통인 그랑 컴플리케이션 메카니즘의 기본 기능으로 남아 있다. 2005년 매종 창립 2백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16개의 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뚜르 드 릴'과 같이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되는 복잡한 타임피스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후 창립 2백60주년 기념으로 선보인 57개의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레퍼런스 57260으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바세른 콘스탄틴에서 완벽한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캘린

더 기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매뉴팩처는 초창기부터 포켓 워치 분야에서 높은 차원의 워치메이킹에 민감한 일부 고객과 수집가의 특별 주문에 응했다. 1890년 한파리징어 고객의 주문으로 항성시를 표시한 시계 제작과 일출 및 일몰 표시 기능의 심플 캘린더, 진태양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블랙 무브먼트가 대표적이다. 1919년은 문페이즈, 일출 및 일몰 표시와 레트로그라이드 균시차 기능을 갖춘 페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를 선보인 해다. 손목시계의 소형화 작업으로 잠시 보류한, 별의 경로를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인디케이션 전통은 20세기 후반 기계식 시계 열풍 이후 매종의 주요 컬렉션으로 돌아왔다.

스페셜 오더와 탁월한 작품 제작을 담당하는 매종의 캐비노티에 부서는 극도로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전문 시계 분야에서 진정한 마스터피스를 탄생시키며 명성을 얻고 있다. 그중 상용시 및 태양시, 항성시를 포함한 23개 기능을 갖춘 '셀레스티아 아스트로노미컬 그랑 컴플리케이션 3600'을 비롯해, 마니 리피터와 19개의 필수 천문학 기능을 결합한 '아스트로노미컬 스트라이킹 그랑 컴플리케이션 - 오드 투 뮤직'이 이를 대표한다. 올해 캐비노티에 컬렉션에서 선정한 테마는 '드 랑 셀레스테(천체의 시간)로 세 가지 특별한 타임피스를 통해 우주를 매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의 1670-4606

메타데로



1 페트리오니 문페이즈 앤 레트로그라이드 데이트. 2 정밀 위아와 다이얼 아래 위치한 시곗바늘로 시간을 표시하는 포켓 워치(1929년). 3 낮은 음으로 울리는 마니 리피터, 요일과 레트로그라이드 등의 기능을 갖춘 전설적인 돈 판초 워치(1935년).



Present Perfect

올해가 가기 전 꼭 받고 싶은 선물, 피아제 폴로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폴로 컬렉션은 1979년 폴로 게임을 즐기는 우아한 젯 셋족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18K 골드와 이투어인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다시 태어난 폴로 컬렉션은 피아제의 유일무이한 스포츠 시계로 지금도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 시장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곡선형 케이스와 쿠션형 다이얼, 슬림한 라인 등이 인기 비결이다. 특히 스포츠 시계지만 수트에 매치해도 어색하지 않을 단정함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이 폴로를 선택하는 이유. 이런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폴로 컬렉션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피아제 폴로 스퀘어 워치 42mm

피아제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시계를 제작하는 브랜드다. 올해는 장시간 살려 기존 폴로보다 두께가 3mm 더 얇은 6.5mm의 피아제 폴로 스퀘어 워치를 선보였다. 푸른색으로 재킷의 플레이팅 스퀘어 워치의 다층 구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데,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적용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양면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아름답게 움직이는 1200시 무브먼트는 44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손쉽게 교체 가능한 워치 가죽 스트랩을 추가로 제공한다. 5천8백만원.

피아제 폴로 크로노그래프 워치 42mm

소매 시어로 살짝 드러난 시계는 남자에게 가장 완벽한 액세서리다. 클래식 수트나 티셔츠 차림이 필요한 연한 피터에서부터 더 다이내믹을 추구하는 수놓은 시계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피아제 폴로 크로노그래프 워치는 다이얼에만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 86개를 세팅했다. 인텍스에는 슈퍼-루비노바를 사용하고 블루 컬러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3시와 9시 방향에는 각각 마넛 카운터와 12시간 카운터가 위치했으며, 100m 방수 기능도 갖췄다. 가격 미정.



2021년은 폴로 컬렉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동안 폴로 컬렉션은 남성 시계로 여겨져왔다. 42mm에 이르는 케이스 지름은 빅 사이즈 위치를 좋아하는 여성에게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크기였기 때문. 하지만 지난 8월, 피아제 폴로 데이트 36mm가 출시되며 스포티한 시계를 선호하는 여성과 손목이 얇은 남성도 폴로 컬렉션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더욱이 42mm 모델과 페어 위치로 구성할 수 있어 커플 혹은 예쁜 시계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피아제 폴로 데이트 워치 36mm

피아제는 하이 주얼리 워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다. 피아제 폴로 데이트 워치 36mm에는 베젤을 포함한 양 라인과 크리스탈까지 총 8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무려 3백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다이얼은 더 화려하다.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블루 컬러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추가 스트랩을 제공한다. 8천3백만원.

피아제 폴로 데이트 워치 36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기묘세 장수의 화이트 다이얼이 우아한 조화를 이룬다. 베젤에는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시계를 움직이는 건 501P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다. 덕분에 케이스 지름 42mm 모델보다 두께가 0.6mm 정도 얇다. 시계를 차고도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이 무브먼트는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4천8백70만원. 문의 1668-1874 글 이승률(객원 에디터)

Shining Holiday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는 홀리데이 시즌. 사랑하는 연인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 피아제의 '2021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에 주목해보자.

한 해가 지나가는 김목에선 설레는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친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선물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얼리와 시계는 연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선물 중 하나다. 예부터 사랑의 증표로 주고받은 상징성 때문이다. 특히 피아제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로 가장 적합한 브랜드다. 1백50여 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와 장인 정신은 물론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 진귀한 보석을 결합하는 아름다운 예술성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은 오토메틱 위치를 만들어낸 기술력까지, 피아제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과연 누가 피아제의 주얼리와 시계를 선물 받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꿰뚫은 피아제는 최근 '2021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을 선보였다.

피아제가 공개한 캠페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금빛 찬란한 소용돌이 무늬다. 얼핏 보면 연말 거리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불빛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는 피아제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볼루트(volute)'라 불리는 이 무늬는 1950년대 피아제의 글로벌 광고 캠페인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 워치 & 주얼리 박람회 등에서 피아제 매종의 로고를 장식하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독창성과 대담함, 유려함 등을 상징한다. 그뿐 아니라 볼루트는 피아제 디자인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피아제의 하이 주얼리와 시계에서 밝은 보석 혹은 다이얼을 휘감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 착안한 것. 대표적으로 라임라이트 갈라 칼렉션의 감각적인 곡선과 비대칭 리그를 꼽을 수 있다. 이렇듯 피아제의 위대한 헤리티지 중 하나인 볼루트가 '2021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에 다시 등장한 건 올해가 그만큼 특별한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피아제에서는 볼루트가 축제, 기념,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연결'을 형상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아제에서는 2021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홀리데이 선물로 아래의 다음 제품들을 추천한다. 형형색색 물든 연말 거리 분위기처럼 반짝 반짝 빛나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1668-1874 **글 이상욱** **사진 김민** **에디터**



01 피아제 폴로 스텔레온 워치 42mm 피아제는 안이 퀘이 들어다보이는 스텔레온 위치를 재해해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준다. 42mm의 케이스는 18K 핑크 골드 완성했으며, 우아한 다크 블루 컬러의 무브먼트는 핑크 골드 케이스와 아름다운 대비를 이룬다.



04 피아제 포제션 슬라임 펜던트 18K 화이트 골드 체인에 총 55개에 이르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회전 밴드와 다이아몬드 세팅의 슬라임 펜던트, 양 끝에 달린 5개의 화이트 골드 비즈가 화려함의 극치를 선보인다.



05 라임라이트 갈라 프레스스 팔리스 매혹적인 디자인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라임라이트 갈라 칼렉션은 197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그중 라임라이트 갈라 프레스스 팔리스는 다이얼에 독특한 질감을 다한 팔리스 데코 핸드 인그라빙과 베젤을 장식한 4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하이엔드 주얼리를 연상시킨다.

02 피아제 폴로 데이트 36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 베젤에는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화이트 기요세 장식의 오팔린 다이얼에는 3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시계에 장식한 501P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는 든든한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시야에서 백 케이스로 아름다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03 포제션 오픈 핑크 트윈스틸드 눈부신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피아제 세팅한 2개의 밴드가 회전하는 '포제션 오픈 핑크 트윈스틸드' 양쪽 끝에서 산형하게 빛나는 카보숑 컷 말라카이트와 우아한 18K 핑크 골드 베젤이 화려한 대비를 이루어는 스타일링에서 나코트 역할을 한다.



Classic Dandy

포근한 스웨터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감수성, 브라운 가죽 스트랩 워치

(우부터 시계 방향) **플랑망 발레 8 데이즈 페페 주얼리** 2100.5까지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알갱이 가득한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칼라버 5839A를 장착한 도넛, 안테나, 요인, 월 인디케이터와 문패이스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배색해 일목요연한 4량 칼라버 메카니즘 이룬다. 시계를 착용하지 않을 때도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고안한 와인더를 포함한 워드 케이스를 함께 제공한다. 6천3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파넬리 웨이브 두에 시계장 228만명에게 친동하며, 0.01mm까지 측정 가능한 시간의 정확성을 높이 인클로저 9,000으로 구동하며, 양자 블록 충격 방지 장치를 적용해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구사한다. 9시 방향에는 스틸 세컨드,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을 올렸고, 수심 30m 방수 기능을 실용성도 갖췄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6906-3394

브라이틀링 프리미어 B25 디토리 42 COOSC 공식 인증 크로노미터 칼라버 B25를 탑재한 모델. 지름 42mm 다이얼에 요인, 날짜, 문패이스트 인디케이터를 달았다. 도넛형 인클로저와 인클로저의 본티지 한층 디자인이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내뿜는다. 한츠에는 슈퍼-루비노바를 얹어 어둠 속에서도 명확하게 시간을 읽을 수 있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3448-1230

IWC 포르투갈리노 핸드 와인더 8 데이즈 무리 82222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자체 제작 칼라버 69212으로 구동한다. 인클로저에 한 번만 태입을 걸기 주면 실제 끝은 9일까지도 구동 가능하다. 남은 동력을 다이얼 9시 방향에 지리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한다. 정제된 디자인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산드나사의 다크 브라운 알파카이트 레터 스트랩으로 품격 있게 마무리했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3440-5876

에기 르클트르 마스터 울트라 싼 문 지름 39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둘러 베젤을 장식하고, 말끔한 화이트 다이얼의 8시 방향에는 루비인즈 창이 자리한다. 최대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칼라버 925로 구동하며, 시계가 정확히 배합과 이스케 이프먼트 힐, 실리온 양귀를 적용한 안전 시스템으로 무브먼트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3천2백만원대, 문의 1670-1833

바세롤 콘스탄틴 하스트리 아메리칸 1921 40MM 쿠션형 다이얼 디자인과 시간을 대시션으로 읽는 디스플레이가 특징으로 제네바 홈마르 인증을 받았다.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톤 다이얼 양에 17개의 아르바이숫자를 올리고, 마스터 트렉을 화이트로 채색해 가독성을 높였다. 12시 방향에 우아한 오프-셋터 크라운이 배치된 아메리칸을 배워준다.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 백으로 매뉴얼 칼라버 4400의 미감을 감상할 수 있으며, 말레 크로스 형태 핀 버클로 상징성을 더했다. 4천8백40만원, 문의 1670-4606 **에디터 이상욱**



● sponsored by PIAGET

에디터 이상욱

Pioneer of Tourbillon

워치메이킹의 역사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탄생시킨 투르비용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시계 제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투르비용은 시계 제조의 정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품격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최고의 기술력,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미학적 요소, 워치메이커의 장인 정신이 오롯이 느껴지는 수많은 요소, 그리고 브레게 하우스가 자랑하는 투르비용을 품은 브레게의 매혹적인 타임피스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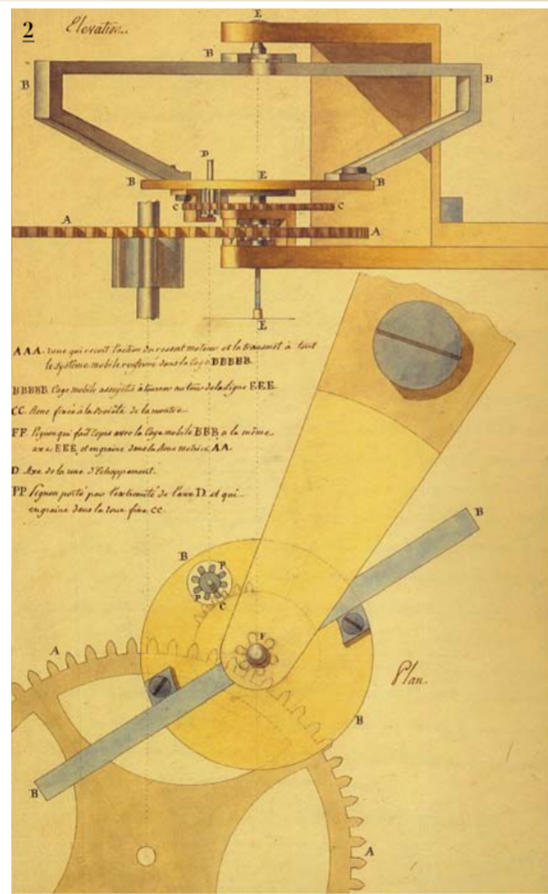
About Breguet Tourbillon

“이 발명품을 통해 나는 레귤레이터 운동 위치에 따라 야기 되는 비정상적 작동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레귤레이터의 피벗(pivot)과 피벗이 작동하는 구멍들 주위의 모든 부품에 대한 마찰을 분산시켜 마찰 면의 오일이 언제나 균일하고, 무브먼트의 정확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상쇄한 것입니다.” 1795년 브레게가 개발하기 시작한 투르비용은 1801년 특허를 받았는데, 당시 브레게가 특허 신청서에 기술한 투르비용의 장점은, 프랑스어로 ‘회오리바람’을 뜻하는 투르비용은 지구의 중력과 착용자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무게중심에서 비롯된 시계의 부정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다. 시간의 편차를 발생시키는 부품인 밸런스, 밸런스 스프링, 이스케이프먼트를 작은 회전 우리 안에 넣어 1분에 한 바퀴씩 축을 중심으로 자전시키는 동시에 이스케이프먼트도 같이 공전시킴으로써 위치에 따른 시계의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원리다. 1801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워치메이커로 꼽히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는 투르비용을 처음으로 개발하며 특허를 획득했다. 이어 1805년부터 1823년에 이르기까지 단 35개의 투르비용을 판매했다. 1개의 투르비용 위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르비용을 만들 수 있는 워치메이커는 전 세계를 통틀어 2백50명 정도뿐이다. 실제로 확인된 워치메이커는 1백20명이 넘지 않는다. 2백6개의 부품을 0.3g 이하로 제작하는 투르비용 1개의 제작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1년이 넘기도 한다. 따라서 투르비용 생산량은 지금껏 한정적이고, 이는 투르비용의 가치를 더욱 크게 만든다. 시계 애호가들이 투르비용 위치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은 단순히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갈고닦은 장인들이 습득한 고도의 기술력이 응집된 작품을 원한다. 투르비용의 섬세하고 미세한 움직임은 시간의 정확성을 보완하는 물리적 도구가 아닌 눈을 매혹하는 예술품에 가깝다. 전 세계 수많은 투르비용 워치 중 브레게의 투르비용을 품은 시계는 복잡함과 정밀함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합해낸 걸작 중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까지도 타 브랜드 투르비용의 모체가 되는 브레게의 투르비용은 브레게 하우스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더할 나위 없는 브레게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없다.

The Best Breguet Tourbillon Watch

투르비용 워치 중 가장 많은 종류를 생산하는 브랜드는 단연 브레게다. 브레게의 투르비용 워치는 하우스의 순수한 혈통과 역사, 위대한 장인 정신을 담은 걸작체로 평가받는다. 몇 세대에 걸쳐 독보적으로 자리매김해온 브레게의 투르비용 워치를 소개한다. 투르비용이 탄생한 지 2백20년 후 선보인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에니버서리 5365 워치는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정확성과 안정성의 새로운 경



● sponsored by BREGUET

지를 연 창립자의 발명품에 대한 찬사와 경의를 담고 있다.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평생에 걸쳐 선보인 투르비용 시계와 동일한 35개로 한정 제작된다. 브레게는 특별한 시계를 기념하는 이 타임피스에 60초 투르비용을 탑재했다. 4시와 6시 사이에서 하나의 축이 초를 가리키는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투르비용에 부착된 카르투슈에는 2백20년 전 특허 취득 당시 부여받은 특허 번호를 나타내는 ‘Brevet No° 157’ 문구가 장식되어 있다. 배경에는 투르비용 특허에 대한 찬사가 드러나는 ‘Anniversaire 1801 - 2021’ 문구가 각인되어 있고, 투르비용 하단 브리지의 각 타임피스 고유 번호 옆에 새긴 ‘Brevet No° 157 Du 7 Messidor An IX’ 문구에도 특별한 발명품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겨 있다. ‘브레게 마린 투르비용 에라시용 마상 5887 워치는 스포츠 스타일에 정교한 무브먼트와 최고급 수공 장식을 더해 탄생했다. 브레게가 써 내려간 세 가지 역사를 한데 엮은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하우스 창립자 브레게가 특허를 획득한 투르비용을 적용했으며, 퍼페추얼 캘린더 및 공사차 기능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1815년 루이 18세가 프랑스 왕정 해군을 위한 공식 워치메이커로 임명된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업적을 기념한다. 이 마린 컬렉션은 해양 세계의 여러 모습을 시계에 담았다. 다이얼 중앙에는 기요세 기법으로 새긴 파도 패턴이 자리한다. 뒷면에는 프랑스 왕정 해군의 제1함대인 로얄 루이(Royal Louis)의 모습을 무브먼트 브리지에 섬세하게 새겨 넣었으며, 배럴 드럼은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한 풍배도(compass rose) 모티프로 장식했다. 이 그랑 컴플리케이션 모델은 엑스트라-신 셀프 와인딩 투르비용 칼리버 581로 구동된다.

투르비용을 극도로 단순하고 아름답게 해석한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오토매틱 5367 워치는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고안한 시계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에서 영감을 받았다. 11시 방향의 브레게 아라비아숫자를 갖는 챔퍼 링이 중심을 벗어나 자리하며 5시 방향의 투르비용과 마주 보고 있다. 다이얼 위에는 필수적인 정보만 담았다.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따로 놓지 않았으며, 주요 요소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스피렐을 올린 그래픽적 느낌의



핸드-베벨링 투르비용 바를 선택했다. 외관은 극도로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무브먼트에는 풍성한 장식을 한 것 또한 특징이다. 브리지와 배럴, 로터는 모두 손으로 각인했으며,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위치에서 선보인 적 없는 우아한 그랑 피(grand feu) 에나멜 다이얼을 사용했다.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오토매틱 5367의 두께는 7.45mm, 무브먼트 두께는 단지 3mm에 불과하다. 극도로 얇은 3mm 칼리버를 스텝레톤 디자인으로 설계해 브레게 워치메이커의 놀라운 기술력을 세상에 또 한번 알린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스텝레트 5395 워치는 투르비용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 독특한 건축적 구조를 보여준다. 가능한 한 많은 소재와 부품을 제거하는 동시에 부품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고수한 엑스트라-신 581 칼리버의 무게는 0.29g에 그친다. 이 무브먼트가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탁월한 장식과 마감에 있다. 손으로 완성한 엔진-터닝과 기요세 디자인으로

로 꾸민 무브먼트 표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균형미와 정교함을 보여준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45도 각도로 일정한 사면이 만들어질 때까지 파일을 이용해 일일이 손으로 연마해서 완성한다. 브레게 투르비용을 대표하는 마지막 시계는 탁월한 기계공학적 기술력과 미적 예술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브레게 클래식 더블 투르비용 5345 퀘드올로지 워치다. 브레게 매뉴팩처는 제한된 공간 안에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정교하고 조화로운 우주를 담아냈다. 다이얼에서 해방되어 기계식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낸 무브먼트는 12시간 간격으로 회전하며, 2개의 독립적인 투르비용은 1분마다 1회 간격으로 회전해 동력을 전달한다. 모든 부품은 전문적인 수공 폴리싱, 챔퍼링 및 세팅 브러싱 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이 타임피스의 미학적 백미는 케이스 밖에 있다. 1775년 이후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일평생 작품을 만들어낸 그의 파리 퀘드올로지 39번가 공방 건물 정면을 수작업으로 새겨 넣었다. 글 신영미(객원 에디터)

1 투르비용 탄생 2백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탄생한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에니버서리 5365 워치. 2 최초의 투르비용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서. 3 투르비용을 장착한 포켓 워치. 4 2개의 투르비용을 적용한 ‘브레게 클래식 더블 투르비용 5345 퀘드올로지 워치. 5 3mm의 칼리버를 스텝레톤 다이얼 안에 담은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스텝레트 5395 워치. 6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오토매틱 5367 워치는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이얼에 필수 정보만 담았다.



Time of Sky

파일럿 워치의 명가 IWC 샤프하우젠이 2021년 새롭게 선보인
파일럿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파일럿 워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계 브랜드 IWC 샤프하우젠. 파일럿 워치는 IWC의 여러 시계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공과 명성을 가져다준 주역이다. IWC가 처음 파일럿 워치를 만든 건 1936년. 당시 IWC를 이끌던 에른스트 야코브 홀베르거에게는 한스 에른스트 홀베르거와 루돌프 펠릭스 홀베르거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의 작업은 다를 아닌 파일럿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파일럿에게 필요한 시계가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고, IWC는 덩고 습한 기후와 바다의 염분, 조종석에서 형성되는 강력한 자기장 등을 견뎌내는 파일럿 워치를 개발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IWC는 파일럿 워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브랜드로 떠올랐다. IWC는 추축국과 연합국 모두에서 환영을 받으며 영국군과 독일군에 동시에 파일럿 워치를 제공했다. 특히 영국군을 위해 개발한 '마크 시리즈'가 유명했는데, 그중에서도 1948년 선보인 '마크 11'은 지금까지도 클래식 파일럿 워치의 교과서로 불린다. IWC는 올해를 파일럿 워치의 해로 명명했다.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을 대폭 강화한 신모델 중 올해를 대표할 만한 시계를 손꼽자면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와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탐진 모하비 데저트 에디션'이라 단언할 수 있다.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는 IWC를 상징하는 빅 파일럿 워치에 IWC가 자랑하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모델이다. 매력적인 블루 컬러 다이얼을 적용해 퍼페추얼 캘린더가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나며, 젊고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특징한 46.2mm 스틸 케이스에는 안티마그네틱 칼리버 52615를 장착했다. 덕분에 무려 7일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매일 불규칙한 날짜 수와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해 2100년까지 날짜와 요일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또 북반구와 남반구 달을 동시에 보여주는 더블 문페이즈 인디케이터는 5백77.5년 동안 단 하루의 오차만 발생할 정도로 높은 정확성을 갖추었다. 3천8백90만원.

● sponsored by IWC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탐진 모하비 데저트 에디션

IWC는 지난 2019년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탐진 모하비 데저트 에디션을 선보인 바 있다. 해군 조종사의 비행복과 미 해군의 차이나 레이크 기지가 워치한 모하비 사막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시계였다. 샌드 컬러 세라믹 케이스와 다크 브라운 컬러 다이얼, 샌드 컬러 라버 스트랩의 조합은 밀리터리 파일럿 워치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IWC는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탐진 모하비 데저트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 에디션에 퍼페추얼 캘린더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샌드 컬러의 세라믹 케이스에 수놓인 더블 문페이즈는 황량한 사막에 뜬 푸른 달을 연상시킨다.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52615 칼리버를 탑재했으며, 1년에 단 1백50피스만 한정 제작한다. 4천9백90만원. 문의 1670-7363 글 [이승환](#) (개인 에디션)



Great encounter

해밀턴과 의상 디자이너 제니 브라이언트가 만나 현대와 미래를 잇는 매혹적인 타임피스를 탄생시켰다. 시간을 넘나드는 할리우드 스타일로 구현한 해밀턴의 새로운 워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해밀턴의 시계는 1932년 영화 <상하이 익스프레스 (Shanghai Express)>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5백편 이상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내며 할리우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해밀턴과 의상 디자이너 제니 브라이언트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진정성과 혁신을 향한 헌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제니 브라이언트는 과거의 복식을 화면에 고스란히 구현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스타일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그녀의 의상 디자인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진정성 있는 인물을 완성하는 데 필수 요소로 꼽힌다. 해밀턴의 시계 역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계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해밀턴과 제니 브라이언트의 이러한 공통점은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시켰다. 이 만남을 통해 해밀턴의 아이코닉한 아메리칸 클래식 타임피스 중 3개의 모델이 그녀의 손을 거쳐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제니 브라이언트는 스포티한 매력의 '인트라-메릭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워치'에 따뜻하고 섬세한 컬러와 부드러운 텍스처를 더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디테일과 라이트 옐로 골드 PVD, 파우더리한 느낌의 로즈 컬러 가죽 스트랩으로 화려한 할리우드 분위기를 표현했다. 1968년의 크로노그래프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타임피스가 21세기 도시 혹은 트랙에 어

울릴 법한 자유롭고 활동적인 스타일로 변신한 것이다. 그녀의 손길이 닿아 새롭게 탄생한 두 번째 세계는 '아트모어 퀴즈 워치'. 기존의 다채로운 아트 데코 스타일에 뉴트럴 컬러와 매혹적인 텍스처를 더해 한층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변신했다. 중앙에 자리 잡은 실버-화이트 오팔린 다이얼은 라이트 옐로 골드 컬러 케이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오프화이트 컬러의 이미테이션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은 여성스러움을 더해준다. 마지막 주인공은 선레이 브러싱 처리한 블랙 다이얼과 그 위에 자리 잡은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특징인 '빈티지 레이디 퀴즈 워치'로 짙은 플립 컬러 케이스가 독특한 개성을 드러낸다. 20세기 초 출시한 해밀턴 펜던트 워치에서 영감을 받은 1950년대 오리지널 디자인에 독특한 포인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해밀턴의 CEO 비비안 슈타우퍼(Vivian Stauffer)는 이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니와의 파트너십은 아이코닉한 해밀턴 컬렉션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해밀턴의 유산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조명할 결과 진정한 타임캡슐의 가치를 지닌 타임피스가 탄생했습니다. 덕분에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각 모델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개성을 더해 새롭게 탄생시킨 해밀턴의 매혹적인 타임피스를 통해 시간을 넘나드는 할리우드 스타일을 경험해보자. **클릭하여 컬렉션 보러가기**



아트모어 퀴즈 워치

© sponsored by HAMILTON

빈티지 레이디 퀴즈 워치

The Masterpiece

위스키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발베니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선보였다. 마실수록 한 겹씩 드러나는 풍미가 럭셔리 위스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가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ponsored by WILLIAM GRANT & SONS

싱글몰트 위스키의 약진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실제 한 백화점의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주류 매출을 보면, 싱글몰트 위스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481.1%나 급증했다. 다시 말해 싱글몰트 위스키가 주류 시장의 소위 '대세'로 떠오른 것이다. 그중 발베니는 위스키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중 하나다. 그 이유는 직접 경작한 보리밭에서 원재료를 수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땅에 보리를 심는 과정부터 발베니의 사주인 샘. 이어 몰팅과 증류, 오크 통 재질과 숙성, 병입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1892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발베니 증류소가 유일하며, 그런 이유로 발베니에는 '슈퍼 프리미엄'이라는 칭사가 따라다닌다. 위스키 애호가들은 발베니만의 풍미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 증명하듯 매년 각종 권위 있는 위스키 품평회의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린다. 지난 2010년,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 IWSC(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에서 발베니 포트워드 21년이 가장 뛰어난 프리미엄 위스키에 수여하는 'TWSC 트로피' 대상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발베니의 이런 특별한 맛은 59년 경력의 수석 월드 마스터 데이비드 C. 스튜어트(David C. Stewart) MBE(Memb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가 책임진다. 데이비드 스튜어트

는 스코틀랜드 위스키업계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장인으로, 발베니의 인기를 견인한 12년 더블우드와 21년 포트워드도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얼마 전 발베니에서는 그가 만든 또 하나의 역사를 출시했다.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가 그 주인공. 발베니의 창고에는 수만 리터의 몰트 원액이 숙성 중이다. 대부분은 이베리칸과 유러피언 오크 통에 담겨 있다.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는 그중에서도 가장 잔류한 원액을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직접 엄선해 만든 제품이다. 물론 특별한 과정도 거쳤다. 트래디셔널 오크 톤(Traditional Oak Tun)에서 매리징(marrying) 과정을 거친 것. 매리징이란 각각의 캐스크에서 꺼낸 원액을 병입하기 전까지 커다란 오크 통에서 잘 혼합되도록 추가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매우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풍미가 완성된다. 직접 마셔보니 처음에는 단순한 듯 느껴지지만 한 겹씩 풍미가 더해지는 것이 일품이다.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를 빚은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발베니 특유의 달콤함과 진한 오크 향이 가장 먼저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운 마시멜로와 신선한 과일, 대담한 바닐라의 맛 등이 총출동"이라며, 오랜 시간의 기다림으로 숙성한 위스키인 만큼 뚜렷한 개성과 캐리커가 발베니 싱글몰트만의 깊이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의 02-2152-1600 **클릭하여 컬렉션 보러가기**

special gift Winter Holiday

우아하면서 세련된 감성의 여성을 위한 편집숍 폴스튜디오와 클래식 헤리티지에 트렌디함을 믹스 매치하는 센스 있는 남성을 위한 폼앤드라운지에서 제안하는 연말 기프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for Her

1 구미개를 겸비한 모자 23만5천원 **자앤지**, 2 레드 컬러 트윈드 소재로 만들어 시선을 사로잡는 A라인 스카트 8만5천원 **오디**, 3 감각적인 프린트의 스크린치 4만5천원 **레자노**, 4 고급 소재의 견고함, 섬세한 마감까지 놓치지 않은 로퍼 54만5천원 **에이티피**, 5 파플 기어한 실크 스카프 1만4900원 **피에르 루이스 아시아**, 6 골몰이 모양의 크리스탈 펜던트 17만5천원 **크리스탈 헤이즈**, 7 스트레이트 핏의 더블브레스트 캐시미어 코트 3백28만원 **민조나**, 8 벨가한 크로세 자판과 볼드한 체인으로 유니크한 무드를 풍기는 크로세 숄더백 28만5천원 **7터미나 베르티나**, 모두 by 폴스튜디오, 문의 02-3449-5359



for Him

1 독특한 라운드 프레임이 돋보이는 아이웨어 45만원 **이펙터**, 2 0.8mm의 육군 장교의 신병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슈즈 38만9천원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 3 따뜻한 울 소재 체크 패턴 바짓 핫 1625천원 **키스갠**, 4 딥 그린 컬러의 니트 맨투맨 2825천원 **팝 트레이징 캠퍼나**, 5 캐시미어 라이닝 포인트의 양가죽 장갑 27만5천원 **미도바**, 6 봉제선 없이 제작한 니트 캡 17만5천원 **케이비아이**, 7 100% 소가죽으로 제작한 빅 백 63만5천원 **헨더 스킨**, 8 유니크한 컬러 조합의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머플러 39만8천원 **존스톤스 오브 얼진**, 모두 by 폼앤드라운지, 문의 02-3438-6142 에디터 **성정민**



new anemones garden

자유로운 핑크 정신과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 우아한 취향을 경험할 수 있는 알렉산더 맥퀸의 뉴 부티크.

진취적이고 우아한 여성상을 그리며, 근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알렉산더 맥퀸이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에비뉴엘 2층에 위치한 뉴 부티크는 알렉산더 맥퀸만의 자유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낭만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했다. 새로운 부티크 오픈 소식에 지난 2년 동안 하우스의 앰배서더로 활약해온 전지현이 방문해 직접 오프닝 축하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F/W 시즌, 차유의 힘을 지닌 아네모네 꽃에서 영감을 얻은 우아한 룩에 커브 백을 들고, 그녀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한 세련된 스타일을 제안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From London to Seoul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2층에 위치한 이곳은 맥퀸만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하우스의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이 매장은 여성복과 액세서리를 만나는 곳으로, 공간 여기저기에 자리한 마네킹은 아네모네 꽃에서 영감을 얻은 룩을 입고 갓 파어난 꽃처럼 풍성하고 화려한 매력으로 우아하고 강인한 여성상을 전달한다. 매장을 이루는 주요 자재로는 목재를 선택했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1 아네모네 꽃에서 영감을 얻은 2021 F/W 룩을 우아하게 소화한 앰배서더 전지현, 2 24인치 크기의 컬러 구성의 커브 백을 만날 수 있는 알렉산더 맥퀸의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2층 뉴 부티크, 3 이번 시즌 로지아트 & 레드 컬러를 입혀 새롭게 선보인 커브 백



다. 바닥과 벽을 채운 밝고 어두운 색의 참나무와 호두나무는 늘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하우스의 핵심 가치를 상징한다. 이음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 맞춘 배열에는 하우스의 독보적인 수공예 기술과 수작업을 뒷받침하는 전통 기술에 통찰력 있는 디자인과 혁신을 결합해 그 가치를 전한다. 또 런던 알렉산더 맥퀸 스튜디오에서 특별 제작한 나비 문양 작품로 한쪽 벽을 장식해 서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동시대성과 전통성이라는 상반된 요소가 긴장감을 이루며, 여성의 과감한 면모를 부각하고, 용감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알렉산더 맥퀸만의 정체성이 곳곳에 스며든 공간에서는 뉴 시즌 여성복을 비롯해 주얼리와 신발까지, 그리고 다채로운 커브 백 컬렉션도 만날 수 있다. 이어 연말이 문을 연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광주점에서도 맥퀸만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뉴 부티크를 방문해 알렉산더 맥퀸이 이끄는 아네모네 가든으로의 여정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02-6905-3472 에디터 **이주이**

Holiday with Scents

1백 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전설의 향수 샤넬 N°5가 홀리데이를 맞아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담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샤넬 N°5는 샤넬 하우스 정신을 가장 매혹적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1921년 가브리엘 샤넬이 N°5를 만들었을 때 그 어떤 향수에도 다른 특별한 향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시대의 향수를 지향했다. 다양한 향의 조합으로 탄생한 시그니처 향, 불필요한 장식을 없앤 심플한 보틀, 그리고 이름에 부여된 상징적인 숫자 5까지.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만 이뤄져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이 향수는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했으며 크리에이터의 완전한 자유로움을 표현해왔다. 1백년 후 맞은 홀리데이를 기념해 샤넬은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N°5 오 드 빠르팡과 N°5 로(L'EAU), 두 가지 버전의 새롭고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기존의 심플한 보틀에 각각 골드와 실버 컬러의 숫자 라벨 5를 더해 특별함을 부여한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N°5 오 드 빠르팡과 N°5 로(L'EAU)는 홀리데이 무드에 맞는 특별함을 더하며, 오직 이번 홀리데이 기간에만 만날 수 있어 더 의미 깊게 다가온다. 이와에도 환경을 위해 샤넬은 보틀에 최초로 재활용 유리를 활용했으며, 향수를 포장하는 패키지를 박스 역시 자연 분해되는 페이퍼 필포를 이용해 사대를 앞선 방식으로 환경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재활용 유리로 만든 보틀은 샤넬만의 특별한 파트너십을 통해 여전히 투명하고 순수한 반짝임을 발한다. 보틀을 감싸는 화이트 박스는 시간뿐 아니라 손으로 만질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촉감으로 감각적인 느낌을 선사해 오감을 만족시킨다. 샤넬 N°5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느낄 수 있는 풍부한 플로럴과 알데하이드를 혼합한 향인 N°5 오 드 빠르팡과 샤넬 하우스의 조향사 올리비에 볼쥬가 재해석한 더 생략하고 맑은 느낌의 N°5 로(L'EAU)까지, 샤넬 N°5의 모든 아름다움과 특별한 향을 담은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놓치지 말 것.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에디터 생정민

(위부터)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N°5 오 드 빠르팡 100ml 23만8천원,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N°5 로(L'EAU) 100ml 23만8천원.

sponsored by CHANEL

Roman Chic

이탈리아 정통 클래식을 완성하는 향 테일러링.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클래식한 감성과 최고의 테일러 기술을 결합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탈리아 명품 슈트 브랜드 브리오니에서 향수를 출시했다. 클래식한 시종리스 네이비 슈트에서 영감을 받은 보틀 디자인을 보면 한눈에 브리오니 패션 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녹인 성세함과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 굵은 곡선이 특징인 베이스, 중후한 네이비 블루 컬러의 이탈리아 유리로 만든 스커어 슬더 봉부터 중앙에 자리 잡은 심플한 라벨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라벨은 브리오니 맞춤 정장 라벨에서 영감을 받아 고급스러운 새틴 원단으로 제작했다. 그뿐 아니라 옷자락에 한 뼨 한 뼨 장인의 숨결을 수놓은 금색의 스티칭을 연상시키는 라벨의 테두리는 로만 스타일의 대명사인 브리오니의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향 또한 브리오니 슈트를 입은 이탈리아 신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우디 플로럴 이모미틱 블렌딩으로 스마트하고 엘레강스한 테일러링을 보여준다. 상쾌한 핑크 페퍼론과 그린 애플로 선명하고 강렬하게 시종해 바이올렛 플라워와 앰브록산으로 소프트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시더우드와 톱카 빈, 머스크로 정교하면서도 시크하게 마무리된다. 이 향수를 제작한 퍼퓸머 미셸 알미라키는 브리오니의 세련된 우아함과 이탈리아 쿠티르 향취가 느껴지도록 제작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감성, 테일러링의 장인 정신에 대한 찬사가 가득 브리오니 EDP로 클래식한 명품 슈트의 감성을 즐기볼 것. 에디터 생정민

sponsored by CED INTERNATIONAL

시원한 바람과 같은 프레시한 오조닉 익센트로 시종해 캐시미어처럼 따뜻한 머스크로 마무리되는 브리오니 EDP 100ml 15만2천원.

SHOWROOM

FASHION



구찌 구찌 러브 퍼레이드 컬렉션 구찌가 워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프라인 패션을 개최하며 구찌 러브 퍼레이드 컬렉션을 공개했다. 할리우드 거리에서 런웨이를 펼친 이번 컬렉션은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리가 유년 시절 특별한 영감을 받은 할리우드를 '소양의 이름 글자(H.o.l.l.y.w.o.o.d)'로 칭하고, 이와 더불어 영화업계와 배우들에 대한 동경을 담았다. 문의 02-3452-1921

토즈 홀리데이 컬렉션 토즈가 포근한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는 따뜻한 소재를 이용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특히 셔츠 백은 연말 분위기에 맞는 가보고 소프트한 소재와 컬러로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또 겹면의 곱슬곱슬한 플리스 소재와 안쪽의 허더드 마감으로 동근 형태와 볼륨을 연출해 귀여움을 더했다. 문의 02-3438-6008

보티카 베네타 레더 크로스 보디백 2021년 겨울 시즌 상품 02 컬렉션에서 섬세한 꼬임 디테일과 양쪽의 태슬 장식이 돋보이는 레더 크로스 보디 백을 선보였다. 장거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스트랩을 가방 속에 넣어 클러처로 활용 가능하다. 블랙, 포리지, 롤라팝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했다. 문의 02-3438-7682

쇼이그라이슨 리메이크 아케인 쇼이그라이슨이 뉴욕의 아침 햇살, 매력적인 밤, 낙엽이 떨어지는 센트럴 파크에서의 산책 등 뉴욕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영감을 받은 겨울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감각적인 디자인에 세련된 컬러 조합을 이루어 완성도를 높였다. 문의 080-202-2002

발베니 발베니 25년 레어 매리지 엄선된 위스키 원액을 목재 통에서 숙성하는 매리주로 탄생된 발베니 25년을 출시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복잡한 향의 노트를 드러낸다. 문의 02-2152-1600

다들 뷰티 아틀리에 오브 드림즈 2021 다들 홀리데이 룩 - 아틀리에 오브 드림즈를 한정 출시했다. 린스틱, 아이 새드 필러, 블러셔, 네일 폴리시 등으로 구성했으며, 매혹적이고 화려한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완성해 특별한 연말을 만들어 줄 것이다. 문의 080-342-9500

브리오니 브리오니 오드 퍼퓸 브리오니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수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향수 '브리오니 오드 퍼퓸'을 출시했다. 베이스 노트에 시더우드, 머스크, 톱카 빈, 미들 노트에 바이올렛, 톱 노트에 풋사과 등을 사용해 우디 플로럴 향을 풍긴다. 문의 080-363-5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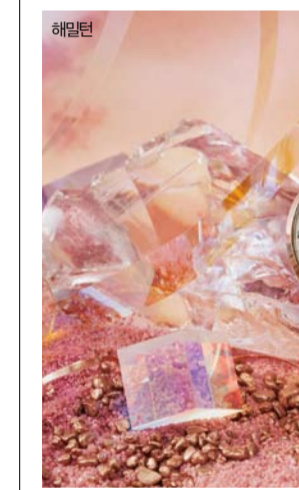
글렌피딕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 스코틀랜드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 글렌피딕과 프랑스의 최고급 코냑 캐스크가 만든 최상의 결과물인 글렌피딕 26년 그랑 코론을 출시했다. 2년간 추가 숙성을 거쳐서 완성에 오크의 알콜한 향이 더해져, 구운 과일, 타르트, 버터 향이 가득한 슈 페이스트리를 연상시킨다. 문의 02-2152-1600

에스티 로더 러쉬리 퍼페그리언스 컬렉션 8가지 독보적인 향으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한층 더 깊어진 향수를 출시했다. 에스티 로더의 새로운 독점 기술 센트럴 캔처 프라그런스 익스텐더는 한 번의 분사로 향이 최대 12시간 지속되도록 했으며 40ml, 100ml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71-3212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LIFESTYLE

시몬스 엔드 오브 이어 프로모션 브랜드 고유의 포켓 스프링 기술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해 최상의 숙면을 도와주는 시몬스가 연말을 맞이해 '엔드 오브 이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매트리스는 최대 20%, 프레임, 페너치, 롬세트는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구매 금액별 시은품으로 뷰티레스트 비스코 폼 매트 베개를 증정한다. 문의 1899-8182



프리드 프리드 홀리데이 시즌 크리스마스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프리드 가 장난기 넘 치면서도 화려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 상사인피니 컬렉션은 섬세하게 디자인된 여성스러운 컬링 모양으로 연인 레니스케이트 모티브에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문의 02-514-3721

피아제 2021 홀리데이 시즌 캠페인 피아제에서 홀리데이 시즌에 팔리스 데코 핸드 인그로빙 장식의 마더 오브펄 다이얼을 세팅한 라 알라이트 컬러 프레스스 펠리시스를 제안한다. 18K 핑크 골드 다이얼 지름 32mm로 여성스러움을 더하고 동시에 골드빛의 화려한 홀리데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2-3479-1802

해밀턴 해밀턴

카르티에 카르티에

에르메스 에르메스

오메가 마이 초이스 캠페인 글로벌 앰배서더인 배우 현빈과 새로운 광고 캠페인 마이 초이스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클래식한 드빌 트레이저, 새로운 모음의 씨리스터 300,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스피드마스터 컬렉션 등 오메가의 대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7-8632

에르메스 워치 에이지 에이지 시계와 로즈 골드 케이스로 새롭게 탄생한 에이지 이유에 처음으로 컬러 스톤 다이얼을 적용했다. 1백2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몰 사이즈 로즈 골드 케이스에 말라카이트 다이얼을 장착했으며, 56개의 다이아몬드를 그린 스톤 돌레에 배치해 은은하면서도 화려하다. 문의 02-542-6622

스위르브스키 스위르브스키

다들 다들

에르메스 에르메스

바쉐론 콘스탄틴 바쉐론 콘스탄틴

브레게 루르비옹 엑스트라-플랫 에버스타일 5365 투르비옹 특허 획득 2백20주년을 기념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정확성, 안정성, 품격의 새로운 경지를 연 창립자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클래식 투르비옹 엑스트라-플랫 에버스타일 5365를 선보인다. 엔진 타당 기법을 통한 견고함이 특징으로, 35피스 한정 제작했다. 문의 02-3149-9559

해밀턴 해밀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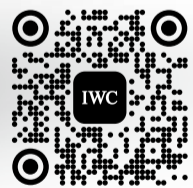
에르메스 에르메스

에르메스 에르메스

JEWEL & WATCH

BEAUTY

IWC PILOT. ENGINEERED FOR ORIGINALS.



— Big Pilot's Watch Perpetual Calendar. Ref. 5036: 빅 파일럿 워치의 짙은 블루 다이얼은 퍼페추얼 캘린더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켜줍니다. 1980년대 Kurt 클라우스(Kurt Klaus)가 개발한 기계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서로 다른 월별 일수와 윤년을 고려해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 2개의 배럴과 7일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IWC 자체제작 52615 칼리버는 완벽한 정교함을 보장합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DOWNLOAD THE NEW IWC APP
FOR VIRTUAL TRY-ON**

IWC-manufactured 52615 calibre · Pellaton automatic winding system · 7 days power reserve ·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 for the date, day, month and year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resistant 6 bar · Diameter 46.2 mm · Stainless steel

IWC Schaffhausen, Switzerland · www.iwc.com

IWC
SCHAFFHAUSEN